



전반전 이정수 선수가 동점골을 터트리자 응원하던 청년들이 환호하고 있다.

다시 이뤄진 월드컵 16강 진출의 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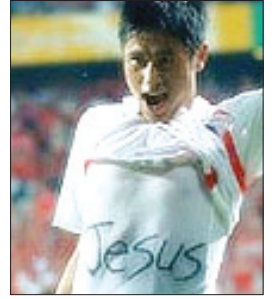
남아공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에서 한국이 나이지리아와 2대 2로 비겨 1승1무1패(승점 4)를 기록, 조2위에 올랐다. 이로써 허정무 감독이 이끈 한국은 처음 본 산 8번째 도전 만에 처음으로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한 것이다. 오는 26일 서부시간 오전 7시, 우루과이를 상대로 8강 진출을 위한 경기를 펼친다.

(지재일 기자)

16강 확정 그 순간... 무릎꿇은 기독교 태극전사들

어깨동무 하고 퇴장하며 '주어'

23일 새벽(한국시각) 2010 남아공월드컵 조별 예선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의 사상 첫 원정 16강이 확정되던 그 순간, 이같은 업적에 크게 기여한 크리스천 선수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이번 대표팀에 포함된 크리스천 선수는 김동진, 김영광, 박주영, 안정환, 이영표, 이운재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16강이 확정되자 너나 할 것 없이 무릎을 꿇기 시작했다. 하나 둘씩 모여든 이들은 둥글게 모여 기도했다.

특히 노련한 경기 운영과 함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줬던 이영표 선수는 기도를 마친 뒤 김동진 선수와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퇴장하면서 연신 "주여"라고 외치는 모습이 중계 화면에 잡히기도 했다.

한편 축구대표팀에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선수들이 유독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대용 기자)

부시 전 대통령 간증

“한국은 신앙의 위대함 보여줬다”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6·25전쟁 60주년 평화기도회'에서 가장 관심을 모은 순서는 바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간증이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단에 올라 한미동맹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신념을 역설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해방과 군정, 남침에 이르기까지 6·25 당시의 역사에 대해 회고하면서 “우리는

국군과 미군의 용맹과 희생에 대한 감동적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또한 미군에게 한국인들이 베푼 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그는 “혹자는 이 전쟁을 잊혀진 전쟁이라 하지만, 이 전쟁에 참여한 이들과 이 전쟁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이들은 잊지 못할 것이다. 전 세계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60년이 지난 지금, 우리

는 이 희생의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다”며 6·25를 통해 공산세력의 확장을 막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켰다고 평가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특히 한국의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에 대해 “한국은 자유와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줬다”며 “한국의 이 성공은 바로 여러분이 이룬 희생의 씨앗이 열매 맺은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고 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어 한미동맹에 대해 “전쟁을 통해 미국과 한국은 견고한 혈맹이 되었고, 전쟁 이후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 지속적이고 적극적 후원으로 동맹국임을 입증했다”며 “두 나라의 협력이 굳건하여 양국 FTA도 눈앞에 있다. 미국 국회는 반드시 한미 FTA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01년 9월 11일, 미국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백악관 자료사진

이 테러 공격 당했을 때 한국은 제일 먼저 미국 편에 선 국가”라며

“미국인들은 한국 어린이들이 대사관에서 무릎꿇고 기도하던 모습, 한국이 자이툰 부대를 아프간의 평화와 위해 파병한 것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부시 전 대통령은 “아직 한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며 “우리는 이 땅이 완전히 치유되고 이 땅 모든 백성이 자유 누리며 통일 완성할 날 반드시 올 것 믿는다. 하나님께서 통일의 날을 속히 오게 하시길, 하나님께서 한국과 미국을 항상 축복하시길 기도한다”고 밝혔다.

(이대용 기자)

나라종합정비 & 바디
Nara Auto Body & Repair 사고차량 전문 바디샵
T. 323-734-4881 / (24hr) 213.247.6657
120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 Smog Check
- Brake Service
- Tune-Ups
- Computer Diagnostic
- 전기계통
- 30/60/90K Service
- A/C Service

ASE, DAEWOO, SMOG CHECK

삼성이하면 다릅니다
SAMSUNG EXPRESS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www.rosehills.com

저렴한 가격과 가까운 장례식장을 원하신다면...

ROSE HILLS Memorial Park & Mortuaries
Rose Hills Mortuary Whittier #FD970

본사(한국어 직통) 1-888-848-8707 브레이크 562-809-7027
세리토스점(한국어 문의) 1-877-767-8850 장의&장례보급 562-809-7027

품격있는 명품 장례식- 로즈힐 장례 서비스

한국인 직원들이 한국어 서비스로 편리하게 도와드리며 로즈힐만의 100여년 전통과 노하우로 특별하게 모시겠습니다.

묘지에서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한 곳에서 저렴하게!

- LA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한인 장례 매니저의 친절한 맞춤 서비스
- 300명까지 수용 가능한 6개의 아름다운 채플
- 종교에 따른 다양한 예식 • 저렴한 장례 관 가격



美남침례교, 해외선교국에 북미지역 선교 최초 허용

다고 SBC측은 알렸다. 특별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SBC가 처음 창립됐을 때, 세계는 '해외(foreign)'와 '국내(home)'의 개념으로 쉽게 나뉘어질 수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더 이상 그렇지 않

외부 인구 유입 증가에 따른 선교 전략 변화 반영

다. 교통 수단 및 통신 기술의 혁명과 이민, 난민화, 디아스포라 등 다양한 유형의 인구 이동으로 인해 세계가 북미 지역으로 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즉, 세방화(glocalization)가 이뤄지고 있

미국 내 점차 증가하는 외국 인들에 대한 복음 전파의 필요성에 따라 남침례교(SBC)가 국제선교국(IMB)과 국내선교국인 북미선교국(NAMB)이 독립적으로 역할해 온 이래 처음으로, 이민자 집단이라는 새로운 선교 필드로의 동시 접근을 허용할 전망이다.

8천만 세계 개혁신교인 WCRC로 하나되다

전 세계 108개 국가의 8천만여 개혁신교인을 대표하는 최대 연합 기구가 지난 주말 탄생했다. 이제 첫 세계 장로교 계열 양대 기구로 각각 존재해 왔던 세계개혁신교 연합(WARC, World Alliance of

WARC-REC, 4년여 만에 공식 통합

Reformed Churches)과 개혁예큐메니칼협의회(REC, Reformed Ecumenical Council)는 18일(현지 시각) 세계개혁신교기독교인(WCRC, World Communion of Reformed Churches)이란 이름 아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클립턴 커크페트릭 WARC 회장(왼쪽)과 피터 보그도프 REC 회장이 함께 자리해 통합 기구 WCRC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WCRC

하고 있다. WARC가 인종·양성 간 평등과, 경제 정의, 환경 보호 등과 같은 예큐메니칼 이슈에 집중해 왔다면 REC는 개혁주의 교인들의 영적 발전과 교회 신앙 회복 운동 등을 이끌며 전반적으로

됐다"고 강조하고 WCRC의 활동에 기대를 표했다. REC 리처드 반 하우텐 사무총장 역시 "교회를 비롯해 우리 삶의 많은 영역에서 분열과 불화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시기에 세계적인 두 기구가 통합을 결정하고 이전에 없던 높은 수준의 연합에 도달한 것은 매우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가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박해민, 이원삼, 박기호, 방지락, 김중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조요한 편집국장: 이재학 광고국장: 이인규 지사망: LA, NY, SAN FRANCISCO, WASHINGTON DC, CHICAGO, ATLANTA, SEATTLE 대표전화: (213) 739-0403 / 팩스번호: (213) 739-0408 주소: LA/3600 Wilshire Blvd., #1030 Los Angeles, CA 90010

강력한 이민 변호사 강력한 형사법 변호사 강력한 이민항소추방변호사 불법 체류자 문제 상담 환영 이민국이 부당하게 부결시킨분, 항소 하실분 추방위기에 처한분, 과거범죄기록있는분, 학생비자(F-1) 변경, E-2 시민권자의 배우자 종교비자, 종교이민 전문, 한국에서의 비자발급 매춘, 강도, 절도범, 경제범죄, 마약, 음주운전, 사기 미성년범죄, 배우자 폭행 범죄기록 조회 및 말소이혼 - 이민국의 부당한 결정으로 부결된 분 - 이민국에 항소중에 있는 분 (부당한 해고 임로 및 오버타임 미지급) 한국어 문의 (213)364-0779 티나킴 전화 213.364.0779 (24시간) 213.736.6696 / 3600 Wilshire Blvd., #204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Claire H. Kim & Associate.

LEE & KENT LAW OFFICES OF LEE & KENT www.leekent.com www.us-lawoffice.com 지난 20년간 미주 한인 사회를 대표하는 종합법률그룹으로서 고객 한분 한분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를 드리겠습니다. 미주한인사회 대표 종합법률그룹 상법 / 소송 ▶ 민사 소송, 중재, 항소, 부동산 ▶ 국제 소송, 기술 이전 / 상표법 ▶ 회사 설립, 계약 위반 파산법 ▶ 개인 파산, 기업 회생 ▶ Chapter 7, 11, 13, 소송 및 차압 ▶ 신용 문제 상담 이민법 ▶ 각종 비이민비자 / 이민비자 ▶ 취업비자&취업이민(EB1, EB2, EB3) ▶ 종교비자&종교이민, 가족이민 ▶ 투자비자(E2), 투자이민(EB5) 대표변호사 이문규 -LEE&KENT 법률그룹 대표변호사 -미국 투자법 및 투자이민법 전문변호사 -Univ. of Minnesota 법대 (J.D)대학원 졸업(1993년) -Univ. of Missouri 경영학 및 회계학 석사(1989년) -캘리포니아 재판변호사 정회원 -연방법원 및 세법관할 정회원 변호사 -미국이민법 변호사협회 정회원 -미주리주 공인회계사(CPA) 협회회원 -Business Advisory Council(캘리포니아 담당) -미주 상공인 총연합회 고문 변호사 -국제 Law Firm Couderc Brothers 근무 -국제거래/회사법/이민법/세법 외 수천 건 해결 LA Office 915 Wilshire Blvd, #2050 Los Angeles, CA 90017 213-380-2828 IRVINE Office 8 Corporate Park #300 Irvine, CA 92606 949-442-8370 SEOUL Office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 1904호 822-510-5200

방익수 목사 “회복된 예배로 내가 나아갑니다”

깊은 영성이 담긴 찬양과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방익수 목사(사랑의방주교회). 한국을 비롯한 세계를 돌며 수 천 번의 예배를 인도하고 각종 매체를 통해 은혜로운 찬양을 들려주고 있는 방익수 목사가 1년 전 알바인에서 목회를 시작했다. 여전히 계속되는 활발한 활동으로 인해 그가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이민목회를 시작했다는 사실은 다소 놀라운(?) 소식이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언제 미국 오셨어요?

“사실 7년 전인 2003년에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활동의 중심을 미국으로 옮겨 사역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기도하던 중 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작년 4월 미국교회인 The Main Place에서 첫 공식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랑의방주교회이죠?

“네 맞아요. 처음 접한 이민교회는...하나님의 화가 아니라 한 인화와 같은 인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회복하여서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변화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교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자율(自律)을 아는 교회가길 원해요.”

-찬양예배의 인도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배의 인도자는 어떤 존재인가요?

“인도자는 곧 제사장과 같습니다. 제사장은 항상 깨끗해야 하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예수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정화작업인데, 예배로 들어가면서 거처야 할 이

과정은 쉽고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때문에 인도자의 영성이, 인도자의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하는데... 무조건 감사 할렐루야 찬양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깊은 예배로 들어갈 때 우리 마음에 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사랑의방주교회...영성 지성 감성의 ‘드리는’ 예배 원해



사랑의방주교회 방익수 목사

는 것이죠.”
-그렇다면 목사님이 생각하는 예배란 무엇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요즘 ‘예배를 회복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회복된 예배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온전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이구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를 받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회복된 예배’에 내가 들어가 진정으로는 ‘드리는’ 예배를 할 때... 우리는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달 말 ‘회복된 예배를 경험하자’라는 주제로 부흥위임을 개최하셨죠?

“5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개최했습니다. 단순히 우리교회만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알바인 지역을 위한 부흥집회였어요. 부흥위임 또한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입니다. 예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지요.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조

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미 거둔 자들이나 예배에 경험이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임재를 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60만 명 정도가 부흥위임을 드렸습니다. 그 중 20만 명은 이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예배 인도자, 목회자가 되신 건가요?

“음악교사이셨던 어머니가 어떤 계기로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까. 달동네에서 어려운 이들과 함께 살면서 목회를 하셨

는데... ‘목회란 저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러나 ‘나는 안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원래 대중가요 활동을 20년 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때 고종사촌인 (박)종호가 찬양을 해보라는 권유를 했어요. 그 후 (최)덕신이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를 통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송신호 목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말씀 훈련을 받게 되었죠. 6개월간 외부 골방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힘든 점은 없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품고 키워내는 일 자체입니다. 그 한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현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알게 되기까지 2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1년으로? 심지어 초신자들은 어떻게...? 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야합니다.”

-앞으로는 어떤 목회와 사역을 하고 싶으세요?

“사랑의방주교회는 말씀으로 회복되는 예배 공동체,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공동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가정 공동체, 사랑과 헌신의 섬김 공동체, 찬양의 기쁨의 문화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영성과 지성과 감성이 함께 하는 깊은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다면 열매는 맺어지는 것이죠. 전 단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역할 수 있도록 더욱 기도할 것입니다.”

(박상미 기자)

한기홍 목사,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복음의 삶 모범돼야

아버지, 신앙으로 가정을 경영하라

한 여론조사기관(월드서베이)의 최근 설문조사에 의하면 30~40대 성인남녀 500명 중 아버지와 한 달 평균 대화 시간(전화 통화 포함)이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54%를 차지한다고 밝혔으며, 5분미만은 34.2%라고 밝혔다. 아버지와 대화가 적은 이유로는 응답자 중 73%가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 적어 대화가 어려움’이라는 이유를 들었으며, 10%는 ‘아버지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되고 싶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묻은 또 다른 설문조사에서 남학생들은 ‘아버지’라고 대답하기도 해, 오늘날 자녀들에게 비친 아버지의 모습이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6월 20일은 미국의 ‘Father’s Day’로 한인가정의 아버지들에 대해 감사하는 날이기도 가정에서나 또는 자녀들에게 비취지는 아버지의 자화상을 다시금 점검해 보게 만든다.

이는 아버지의 역할이 경제적 지원과 가족부양에 집중한 현실적인 문제와 유교적 가부장적 제도에서 비롯된 구습으로 이를 극복

하기 위한 아버지 역할 교육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믿음의 가정 내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단순히 자녀와 부모의 관계개선을 위한 역할 교육을 넘어 부모가 가진 신앙을 자녀에게로 있는 신앙전수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날을 맞아 주일 예배에서 설교한 한기홍 목사(은혜한인교회)는 신앙의 관점에서 본 아버지의 역할을 네 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온 가족으로 하나로 모으고 신앙의 울타리가 되어 주는 ‘결속의 역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헌신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역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가족을 인도하는 ‘인도의 역할’,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파송의 역할’이 그것이다.

한기홍 목사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복음이었듯 말보다는 삶으로 자녀와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며 “아버지들이 먼저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상미 기자)

LA사랑의교회 대안학교 첫 졸업식 개최

대안학교 LASR Charter School(대표 이재영) 제1회 졸업식이 17일 LA사랑의교회(김기섭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이재영 대표는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민 가정 2세들을 섬기기 위해 시작된 대안학교가 올해 처음 24명의 졸업생을 배출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졸

업생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안학교가 공립인 만큼 학비는 무료이며,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누구나 등록 가능하다. 학교는 6가와 라파엣 팍 인근 LA사랑의교회 건물을 사용한다. 문의: 213-386-2233

(지재일 기자)



졸업식 후 단체사진 촬영. 사진제공 LA사랑의교회

100% 믿을수 있는 대한민국 홍삼

HANSAMIN
website : www.korginseng.com

Tel: (213)-384-0989

Free: 1-866-902-8282

농협고려인삼 * DAEDONG KOREA GINSENG CO., LTD.

뉴비전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청빙합니다.

뉴비전교회는 1981년 창립되어 그동안 북가주 지역에서 교포와 지역사회 복음화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이제 또 다른 변화와 성장을 통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고 차세대 이민교회의 새 비전을 제시하실 담임목사를 모십니다.

자격

1. 이민 목회의 새 비전과 소명이 있는 분
2. 교회에서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남침례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3. 정규 신학교를 졸업하신 목회경력 5년 이상으로 담임목회 경험 있는 분
4. 저희 교회내의 영어권과 함께 사역이 가능하고 이중 언어 가능한 분
5. M.Div나 Th.M (목회학 석사, 신학 석사) 이상

서류

1. 이력서 (Resume)
2. 자기소개 (가족 포함) 및 목회 비전서 (Mission & Vision Statement)
3. 졸업 및 안수 증명서 (Certificate of Graduation & Ordination)
4. 본인 /가족사진 1매
5. 설교 Tape / CD 혹은 Video Tape 2개
6. 3 명의 추천서 (Letter of Recommendation)
7. 마감일자: 7/19/2010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처

New Vision Church
 C/O Sr. Pastor Search Committee (청빙위원회)
 1201 Montague Expressway, Milpitas, CA 95035
 Tel: (408) 719-0000 Fax: (408) 719-0007
 Email: srpastorsearchcte@newvisionchurch.org



20일, 남가주광염교회, 창립 감사예배 드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광염교회 되기를”



남가주광염교회 창립감사예배가 드려졌다. ©이태근 기자

“오늘 광염교회를 설립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 뜻에 우리가 동역했다는 말입니다. 광염교회는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 드리는 예수의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남가주광염교회 담임 정우성 목사)

불신자를 대상으로 성장하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위해 창립된 남가주광염교회가 지난 20일 오후 4시 본당에서 창립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오랜지한인연합교회 김인철 목사의 기도, 대구 서성로교회 김장교 목사의 설교, LA장로중앙단의 특별찬양,

충현선교교회 민중기 목사의 축사, 한미장로교회 이운영 목사의 축사, 남가주 목회자 자녀합창단의 헌금송, 총신동 문화 회장 윤성원 목사의 축도 순으로 진행됐다.

김장교 목사는 설교에서 남가주광염교회가 여호와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목사는 “군대 총사령관의 위치에 있던 나야만은 남부럽지 않은 위치에 있었다. 그런 나야만이지만 문둥병자라는 약점이 있었다. 엘리사가 병 고치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나야만이 엘리사에게 갔을 때 치료방법을 알려주었다.

하지만 엘리사는 나야만의 인간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고 많은 재물이 있지만 그를 만

나지 않았다. 이처럼 광염교회가 세상의 많은 것을 보고 다가가지 않는,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민중기 목사는 “광염교회의 창립은 많은 교회 중 한 교회의 창립이 아니다. 사막에 한줄기 물 같은, LA의 영적인 교회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운영 목사는 “교회의 창립보다 성도들이 교회의 멤버가 되신 것을 축하한다. 하나님이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길 바란다”며 축사를 전했다.

©이태근 기자

박영창 목사의 ‘일본이여 대답하라’ 출판감사예배 드려져

일제 강점기 때 겪었던 애환과 고통의 경험으로 쓴 항일투쟁 기록

박영창 목사의 회고록 ‘일본이여 대답하라’ 출판 감사예배가 지난 19일 오전 11시 용궁에서 열렸다.

박 목사의 회고록 ‘일본이여 대답하라’는 일제 강점기 때 박 목사가 겪었던 애환과 고통의 경험으로 쓴 항일투쟁 기록이다. 이날 예배는 개회기도, 축하 메시지, 서평, 영상, 축사, 답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서평을 전한 박희민 목사는 “박 목사님은 지난 세기의 산증인으로 책을 통해 그 시대를 그림 보듯 써냈다. 내용 전 체적으로 드라마틱하고 흥미진진하게 써내 보는 이들로 하여금 흥미를 더하게 했다”고 전했다. 축사를 전한 미주총신대 총장



박영창 목사가 답사를 전하고 있다. ©이태근 기자

조해주 목사는 “박 목사님은 올해 96세이시다. 그런 분이 옛날 일을 다 기억하여 책을 쓰신 것은 초인적인 일이다. 책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꼭 일독해야 할 책이다”고 전했다.

답사를 전한 박영창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함께

하여 책이 나왔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정시우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영창 목사는 1915년 평안북도 영변 출생으로 1939년 동경 유학 중 아버지 박관준과 함께 일본 제국 중의원 국회의사당에서 신사참배반대 항의경고문을 투척한 의거를 일으켜 현장에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 일본호세이대학, 동경신대학, 연희대학,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했으며 일본 동경 한국 YWCA 협동 총무로 활약한 후 귀국하여 명지대 초대교목·교목실장을 역임했다.

©이태근 기자

4차원의 영성으로 삶을 승리하자

[새벽강단 1] 나성순복음교회 ‘Summer Start’여리고 특별 새벽예배 한국교회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새벽예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척교회부터 대형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4차원의 영성이란 무엇입니까?

영성이란 성경과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1차원은 점과 점, 2차원 점과 점을 이은 선, 3차원은 선과 선이 만든 면, 4차원은 면과 면이 만

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요 4: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3차원의 세계에 있으면서 4차원에 속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새벽강단 1] 나성순복음교회 ‘Summer Start’여리고 특별 새벽예배

신앙성숙과 더불어 부흥을 소망하는 곳에는 새벽예배의 열기가 더욱 뜨겁다. 이에 기독교일보는 남가주 한인교회들의 새벽 설교를 집중 조명하여 새벽제단에서만 내리는 특별한 은혜를 나누고 개교회를 넘어 지역과 미주 전역의 부흥을 함께 소망하고자 한다.



진유철 목사

그 첫 번째는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이다. 방학을 맞이한 주일학교 아이들과 청년부가 모두 함께하는 ‘Summer Start 여리고 특별 새벽예배’이다.

〈분문〉 히브리서 11:3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아니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든 공간입니다. 1차원은 2차원에 2차원은 3차원에 3차원 4차원에 포함된 것으로 우리가 사는 3차원의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4차원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는 셈입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피조물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영

죄를 지은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구원이란 단순히 천국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단마귀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전인적 구원입니다.

4차원의 영성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생각, 믿음, 꿈, 말과 같은 요소들로 구성되며, 이 네 가지를 변화시킬 때에 3차원에서 4차원으로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단 마귀 권세를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특별 새벽예배를 통해 생각과 믿음, 꿈과 말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박상미 기자




① 차량 구입하시면서 다운페이가가 없으세요?
 ② 무슨 차종을 선택할까 고민이세요?
 ③ 낮은 페이먼트 원하세요?
 ④ 크레딧이 나쁘세요?

지금 전화 하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FLEET MANAGER **찰리 정**
 ☎ 213-276-8959
 e-mail : usajyk@gmail.com



11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이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용자, 차종 설정, 저렴한 페이먼트

총신디지털

●●● Chongsin Digital Lifelong Education ●●●



본원은 최고의 교수진과 동영상 강의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만 있으면 수업이 가능하며, 수료 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개혁 교단에서 목사인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모집과정

과정	학과	이수과정	지원 자격
신학부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4학년) 8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교) 및 신학교를 졸업 또는 수료한 자
		(2학년) 4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 국내 외 신학대학(교)에서 8학기 이상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각 교단 신학교 졸업자 편입학 - 본원이 인정하는 신학대학원에서 수료한 해당학년 학생 및 졸업자
신대원 전문	신학과 기독교학과 기독교상담학과	(3학년) 6학기 1년 4학기까지 가능	국내 외 일반대학교(4년제)나 대학원 이상에서 학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편입학 - 학사이상의 학위를 수여받은 자 또는 타신학교에서 신대원과정 재학중인 자

● 특 전
 방학없이 1년 4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한 연령, 성별에 상관없음
 여목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학비가 저렴함
 신대원과정 수료자는 목사고시의 필기고시를 면제함

● 구비서류
 입학원서 (www.cds.re.kr 에서 접수 가능), 주민등록등본, 사진, 졸업증명서(편입자)

평생교육법 33조, 동법시행령 48, 49조 규정에 의한 원격교육기관
 (사)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개혁총회가 인준한 사이버 신학 교육기관

www.cds.re.kr 대표전화 82-2-3472-3181

미국 현지에서 체험하는 글로벌 리더십

안양대학교(총장 김승태 박사) 신학대학원(원장 한성기 목사) 15명의 학생들이 미국 현지에서 2010 글로벌 리더십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다. 신대원은 지난 21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서부 지역의 주요 대학들과 성장하는 교회들을 방문, 집중 연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세미나를 마련했다.



안양대신대원 학생들이 풀러신학대를 방문했다. 일부터 로버트 슬러, 릭 워렌, 척 스미스 목사 등을 만나 글로벌 리

더 세미나를 진행한다. 또한 평화교회, 남가주사랑의 교회, 동양선교회, 나성영락교회, 파사데나제일장로교회, 가디나 한인교회, 크리스탈교회, 새들백교회, 갈보리채플, 빈 야드 크리스찬교회, 모자이크 교회, 크린쇼우 크리스찬 센터, 가디나 침례교회 등을 탐방한다. 특히 아주사대학교, 풀러신학대학원, 바이올라대학교, 버클리대학교 등을 방문, 글로벌 리더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재일 기자>

6월 28일부터 3일간, 주강사 선우권 목사 초청

블레싱데이 태신자 전도훈련 미주평안교회서



대전지역에서 개최됐던 블레싱데이 컨퍼런스 장면.

기독교인들의 1년 중 최대 잔치라고 할 수 있는 총력전도 주일 행사인 블레싱데이 컨퍼런스가 2010년에는 LA 한인타운에서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지용덕 목사)후원으로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에서 개최된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전도의 영

이번 컨퍼런스부터 본격적으로 소개된다. 이번 컨퍼런스를 주강사로 인도하는 선우 권 목사(한국 용인수지제자교회 담임)는 부흥이 더딘 교회들의 공통점을 첫째로 담임목사의 '조직 관리'와 '시스템의 부족'을 지적했다. 선우 권 목사는 "목회자가 신실하게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설교도 영성이 넘치는데 성장이 안 되는 이유는 전도 시스템을 조직화 시키지거나 전도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 전체가 움직이게 하는 데에 필요한 리더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런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미리 만든 교재를 공부하고 전교인이 그대로 8주간을 순서대로 따라서만 하면 행정력이 약한 목회자들도 놀라운 효과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행사 후 전도 열매를 보면 100명 출석성도 기준으로 볼 때 8주간의 행사를 거쳐 정착, 등록, 철저한 양육으로 이어져 확고하게 일꾼으로 세워지는 숫자가 최소한 10명에서 20명으로 보고 있다"며 은 교회가 태신자 관계전도법 성경 교재를 통해 하나로 단합하게 된 전 성도가 전도에 집중하게 된다"고 전했다.

블레싱데이 컨퍼런스 당일 등록은 \$160, 사전 등록은 \$140, 3인 이상 단체 등록은 \$120이다. 공개 집회 (무료) 6월 28일(월), 29일(화), 30일(수) 저녁 7시 30분부터. 전도팀과 목회자를 위한 블레싱데이 설명회 월요일 오후 2시 등록시작(유료)-수요일 저녁 강의 종료. 장소: 미주평안교회(담임: 송정명 목사). 문의: 323-916-1988 <지재일 기자>

MEJ, 25일 '내가 노래하는 이유' 콘서트 개최



(왼쪽부터)별, 길건, 강군성

길건, 별, 에스더, 최금비, 강군성 등 출연

크리스천 연예인 공동체 MEJ(Mission of Entertainer in Jesus)가 6월 25일(금) 오후 7시 '내가 노래하는 이유(The 3rd Korean Christian Festival One Glorious Day)'라는 주제의 콘서트를 개최한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집회는 올해로 3회째 개최되는 것이다. 콘서트를 통해 '낮음'을 체험하고,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들 연예인들은 다른 단체의 후원이나 지원 없이 바쁜 시간을 쪼개고, 자비를 들여 이번 콘서트를 준비했다. MEJ는 치열한 연예계를 살아가면서, 인기를 쫓기보다 자신의 달란트를 통해 세상을 치유하려는 모임이다. 비보이와 힙합 등, 이 시대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문화코드로 엔터테인먼트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

이번 6월 25일의 집회는 길건, 별, 에스더, 최금비, 강군성(노을), 김미래 등 가수 팀과 MEJ밴드가 깜짝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연예인들의 가슴 속 이야기와 눈물을 만날 수 있는 열린 기회이다. 이번 MEJ공연집회를 기획한 손종호 전도사는 "스스로 비행기 값을 들여 엘에이에서 전도를 하러 온 만큼 참석자들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이 넘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는 25일 오후 7시 비전아트홀(505 S. Virgil Ave. 3rd Floor, Los Angeles)에서 열리며, 선착순 입장이다. 콘서트에 관한 문의는 손종호 전도사(310-613-0015)로 연락을 하면 된다. <지재일 기자>

컴미션, 28일부터 여름선교학교 진행

훈련기간, 멕시코 정탐과 그랜드캐년 창조과학탐사도 병행

컴미션(대표 이재환 선교사)이 오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이 오는 28일부터 7월 28일까지 여름선교학교를 진행한다. 여름선교학교 기간 등록 학생들은 합숙훈련을 하며 선교의 이론과 실재를 공부하게 된다. 또 주말에는 풀러신학대, 헌팅턴 도서관, USCWM, Church on the Way, Angelus Temple, Faithful Central Bible Church, Marina's Church등을 방문하며 멕시코 정탐과 그랜드캐년 창조과학 탐사도 하게 된다.

컴미션 측은 "여름선교학교 기간 훈련생들은 믿음선교를 지향하는 컴미션의 전방개혁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게 될 것이며 선교는 자기포기가 아닌 자기 완성임을 깨닫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태근 기자>

농협홍삼 '한삼인' 품질과 효능면에서 인정

한국의 인삼생산자가 품질을 보증하는 농협홍삼 '한삼인'이 미주지역 한인사회에서 만족된 평가를 받고 있다. 전국의 인삼

농협에서 엄선된 원료 삼만을 사용, 잔류농약 검사에서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최상의 원료를 최적의 상태에서 가공 처리해 품질과 효능 면에서 믿을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히 한삼인 100% 홍삼순액은 추출과정에서 정제된 지하수만으로 두 차례에 걸쳐 살균처리하며 80도 이하 저

온에서 72시간 동안 장시간 추출해낸 순도 100% 순액이다. 정직과 신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100% 한국산 농협홍삼은 구입처에서 시음해 볼 수 있으며, 홍삼 순액 60포들이 1박스를 사시면 30포 1박스를 공짜로 얻을 수 있다. 문의: 213-384-8900, 213-453-6624 <박삼미 기자>



2010년 유아교육과 학생모집

Day Care, 프리스쿨, 어린이집, 유치원, 방과후 학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개월 코스(월-금 매일수강 및 실습)를 마치면 교사, 원장의 자격이 됩니다.

강의 시작: 2010년 7월 5일(월)

한 생명의 귀중함에 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린 시절은 인간의 전 인격 발달의 절대적 중요한 시기입니다. 본교는 영아, 유아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한 교사 및 원장의 올바른 자세와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교사가 어린이들의 미래를 밝게 합니다. 지금 선택하십시오. - 학장 이정일



본교의 특징	본교 소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과 실력을 갖춘 교수님들이 강의함 ▶ 바른 자녀교육을 통하여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가르침 ▶ 같은 장소에서 17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음 ▶ 수료후 취업을 알선하며 창업도 지원함 ▶ 본교 부설 어린이 학교가 있음(현장실습) ▶ 통신으로도 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많은 졸업생들이 현재 프리스쿨에서 일하고 있음 ▶ 1100명이 넘는 졸업생 배출, 높은 취업률 ▶ South Bay Worldforce Investment Board 에 기입 ▶ 캘리포니아 주정부 인가

International Christian Education College
Serving People In Child Care Industry Since 1991 / www.icecusa.com / icecusa@yahoo.com

유아교육대학 Tel. (213)368-0316,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A, CA 90010 (월서 + 웨스턴)

제3회 청운교회 장학생 선발


청운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 중 장학생을 선발하여 격려하고자 합니다.

대상 | High School, College, Graduate School
자격 | 일반 장학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
목회자 자녀 장학금: 목회자, 선교사가정의 자녀 및 신학생

제출서류 |
① 신청서 ② 본인 에세이 (Letter size 2장 이하)
③ 증명서류
- 일반 장학금: 성적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혹은 학교 교사 추천서
- 목회자 자녀 장학금: 재학 증명서, 섬기는 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출석 교회 주보

접수마감 | 2010년 7월 24일
접수처 및 문의 | 우편접수: 청운교회 장학위원회
THE GREAT VISION CHURCH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90029
전화 문의: (323) 667-9920, (213) 675-8291

신청서 양식은 본 교회 사무실에서 교부해 드리며, 또한 이메일 lifelines@daum.net 에 신청자의 성함과 이메일 주소를 내용과 함께 남겨 주시면 첨부파일로 신청서 양식을 송부해 드립니다. 심사결과는 개별통보해 드리며 장학금수여식은 2010년 8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전화문의는 사절하며 접수한 서류는 다시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분단을 넘어 평화로'... 6.25 기념 평화기도회



평화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모습. ©이대웅 기자

6·25전쟁 60년째를 맞아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회가 22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5만여명의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분단을 넘어 평화로(Over Division to Peace)'를 주제로 열린 평화기도회는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의 간증을 비롯해 조용

기·김삼환 목사의 메시지와 특별기도 순으로 이어졌다.

'이날을 잊지 말자(시 37:1-11)'는 주제로 첫번째 메시지를 전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는 어린 시절 겪었던 비참한 전쟁의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는 이 땅에서 6·25와 같은 전쟁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강

조했다. 조 목사는 "당시에는 한국이 다시 재기할 수 있을지 의심될 정도였지만, 이토록 잘 살게 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얻어먹던 나라에서 도와주는 나라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유와 민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신앙의 자유는 결코 공짜로 온 것이

아니고, 선배들의 눈물과 피땀 어린 고생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 목사는 또 "남북

한에 하나님의 정의와 항구적인 평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마음을 합해 간절히 기도하자"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했다.

도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해 박수를 받았다.

부시 전 대통령의 간증, 김삼환 목사의 '에베에셀(삼상 7:12-14)' 설교에 이어 이광선 한기총 대표회장이 격려사를 전했다. 이 대표회장은 "1천회에 가까운 외

우해(황형택 목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송기성 목사)', '사회적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도록(권태진 목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을 위해(신용백 목사)', '한반도의 분단 극복과 평화 통일을 위해(조봉희 목사),

조용기 목사 "신앙의 자유는 공짜로 오지 않았다"

기도는 효과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분단을 넘어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가 "말씀을 생각하며 전쟁 없는 평화통일을 달라고 기도하자"며 합심기도를 인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상으로 격려사를 전했다. "성도 여러분"이라고 한국교회에 인사를 전한 이 대통령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통일을 이루실 것"이라며 "나라를 위해 기도를 아끼지 않으시는 한국교회 성

세 침략을 이겨낸 한반도와 우리 민족이지만, 북한에 의해 저질러진 동족상잔의 6·25전쟁은 그 상처가 너무나도 컸고, 지금도 지구촌 유일의 분단국가로 그 상흔이 아물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북한은 지난 60년간 온갖 무력도발과 만행을 저지르고도 발뺌을 일삼아왔고, 최근에는 핵개발과 더불어 천안함을 폭침했으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는 말로 북한을 성토했다.

이후에는 특별기도 시간이 계속됐다. 한국교회의 일치와 연합

'전세계 분쟁지역과 재난지역의 회복을 위해(임석순 목사)' 모인 5만여명의 성도들은 뜨겁게 기도했다.

이밖에 2부 김장환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는 대회사, 이정인 목사(신촌성결교회)는 대표기도를,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축사를,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한태수 목사(은평성결교회)는 사회를, 김상복 목사(할렐루야교회 원로)는 축도를 각각 맡았다. 기도회는 애국가를 다 함께 제창하면서 마무리됐다. <이대웅 기자>

사랑의교회 기공예배, 2년 6개월 건축돌입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가 새 성전 건축 기공예배를 2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서초동 건축부지에서 드렸다. 교인 1만여명이 부지를 가득 메웠다.

지난해 6월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앞 사거리에서 7,533.4㎡(약 2,278평)의 부지를 매입한 사랑의

민을 비롯한 서울시 중등 장애인 등에 기부금 전달, 시공사 계약 조인식, 테이프 커팅, 기공 첫삽 뜨기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요한계시록 1장 5-6절 본문, '함께 하나님 나라 꿈을 꾸시다'를 제목으로 설교한 오정현 목사는 "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상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짓는 것이다. 건축을 마칠 때까지 이 건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 목사는 "이 건축은 사랑의교회 배를 두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민족과 다음 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3년



사랑의교회 새성전 기공예배에 교인 1만여명이 참석해 건축부지를 가득 메웠다. © 김진영 기자

1만여명 참석... "우리만을 위한 건축 아니다"

교회는 지난 17일 서초구청으로부터 건축 허가를 받아 비로소 이날 기공예배를 드렸다. 사랑의교회 새성전은 앞으로 2년 6개월 간의 건축을 거쳐 지상 13층, 지하 7층, 연면적 67,419.17㎡(20,394.30평)의 '사랑 글로벌 미니스트리 센터'(Sarang Global Ministry Center)로 거듭날 예정이다.

이날 예배는 1부 예배, 2부 축하행사 순으로 진행됐다. 2부는 건축경과 보고, 서초지역 취약주

황에서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들의 한 조각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사랑의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이 순간에 서로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 꿈을 꾸자"고 말했다.

이어 오 목사는 "지난 1년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정들을 거쳤다. 대형교회가 교회 짓는 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 많았다"며 "사랑의교회의 실력이나 재능,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짓는

내 이 건물이 글로벌 교회로 거듭나고 5년 내 중국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며 7년 내 통일을 준비하게 될 것이다.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중국교회 분부가 있는 상해에서 교회 지도자 1~2천명이 경인운하를 통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예배에는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홍정길 목사(남서울은혜교회), 김진홍 목사(두레교회) 등 교계 많은 목회자들이 참석해

사랑의교회 새성전 건축을 축하했다. 김진홍 목사는 "새 성전 위치가 매우 좋다. 이런 자리에 불타거나 성당이 세워지지 않은 것이 정말 다행"이라며 "한국교회는 문화가 약하다. 건축은 문화를 대변한다. (사랑의교회 새성전이) 한국교회의 문화를 채우는 큰 교회가 되길 바란다. 역사를 창조하고 역사를 만들라"고 했다. 그는 또 "불교에는 해인사가 있고 가톨릭

에는 명동성당이 있지만 개신교를 대표하는 교회가 없다. 사랑의교회 새성전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상징적 건물이 될 것"이라며 "단순히 개교회가 아니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다. 그런 긍지를 가지라"고 덧붙였다.

홍정길 목사는 "지난 1여년간 말도 많고 소문도 많았다. 그러 한 많은 기대 속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짓게 됐다"며 "아름다운 교

회로 지어질 것을 믿는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교회를 보고 느끼기를 바란다"고 격려했다.

이 밖에도 이날 예배에는 덕벌셀 국제로잔대회 총재, 박성중 서초구청장, 김성주 성주그룹 대표, 원희룡 국회의원(한나라당), 사랑의교회 새성전 건축을 맡을 쌍용건설 김석준 회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영 기자>

주택 차압/퇴거 중단

- 페이먼트를 못 내고 있어서 불안하신 분
- 은행에서 Notice of Default, Foreclosure Intention, Trustee Sale 통보 받은 분
- 융자 조정(Loan Modification), 숏 세일(Short Sale) 진전이 없어 불안하신 분
- 이미 융자 조정, 숏 세일 시도했었으나 실패해서 차압이 임박한 분
- 숏 세일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다시 집을 지키기로 결정하신 분
- Foreclosure(차압)이 끝나고 Eviction(퇴거 명령)을 기다리고 계신 분
- 세컨 홈, 4 Unit, APT, 상업용 건물, 교회...
- Rent로 살던 집이 숏세일이나 은행에 차압(Foreclosure)이 되어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분

융자 조정(후불, 미주 전역)

즉각 차압 중단
즉각 퇴거 중단

- 현재 페이먼트를 잘 내고 있으나, 크레딧 손상 없이 페이먼트를 낮추고 싶은 분
- 변동 이자 페이먼트(Option Arm)를 내고 있어서 원금이 늘어나 불안한 분, 30년 고정 프로그램으로 재융자 하고 싶으신 분(NO Tax, Bad Credit OK)
- Obama 법에 의해, 융자 원금 삭감 가능 (예: 2차 론의 경우, 18만불에서 2만불만 내고 16만불 탕감 받음, 사무실 방문시 모든 성공사례들을 직접 확인시켜 드립니다)

NO...NO Short Sale : 저희는 절대로 숏 세일을 권유하지 않으며, 합법적인 방법으로 여러분의 집을 지켜드리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일합니다.

WP Lending Inc
3400 W. 6th st., #200, LA, CA 90020
(6가와 카탈리나, MBC 건물)

Paul Lee (폴리)
213-248-9297

2010년 봄학기 학생모집 월드 크리스찬 신학대학/대학원

이 불경기에 아직도 비싼 학비를 내고 공부하십니까?
전액 장학금과 기숙사(무료)와 무료급식을 제공하는 정규 신학 대학으로 초대합니다.

학교등록
School Code 83344530
World Christian University CA Code 03-020689
California Corporation Code 94808
California Education Code 94739

대학부(B,A)	대학원(M.Div)	박사원(Doctor)	통신 학부
입학자격: 고등학교 졸업자	입학자격: 4년제 대학	입학자격: 석사 학위 소지자	(Department of Home Study) 대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통신으로 수업하여 학위를 수여하는 학부입니다. (미국과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능합니다.)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과, 종교 교육학과 기독교 교육학과, 기독교 선교학과, 기독교 상담학과	모집학과: 신학박사, 종교 교육학 박사 상담학 박사, 선교학 박사 명예 박사 수여도 가능합니다. (특별 상담 가능)	

- 본교 특징** (수시입학 가능)
1. BPPVE와 ABHE 인가를 받은 정규 대학입니다.
 2. M.Div 졸업자는 본 교단에서 목사 고시를 거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본교 대학부 만은 전액 장학금을 드립니다.
 4. 의식주 문제있는 학생 해결
 5. 의자목사 지원하는 학생 적극 지원
 6. 선교사(약기, 성악) 기도원장 이수과목 수료후 자격증 발급 및 사역 지원

구인모집 ◆ 학교 행정업무 보조수 있는 '이중언어' 사용자 및 컴퓨터 능한자 (40세 미만 환영)

교수 채용 공고 아래와 같이 강의 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교수님들을 초빙 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신학대학 : 조직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 상담학
음악대학 : 음악이론, 지휘법, 건반악기, 작곡
선교대학 : 선교학, 기술선교(의료), 찬양운동, 신문, 장애인선교, 특수목회대학원 : 교도소선교, 양로원선교, 경찰선교, 헬터선교

자 격 : 해당분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 수여자로 세례교인 이상
제출서류 : 이력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학위증, 추천서 / 제출기간 : 2010년 8월 20일까지
제 출 처 : World Christian University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서류 심사 후 개별 통보함)

학교 (323)734-0227 미국 예수교 장로회 총회 교단 (323)734-2300
교무처 직통 (213)725-3007, (323)734-4599 / 2716 Ellendale Pl., LA., CA 90007



이날은 아침까지만 해도 우중충한 날씨에 정오를 넘어서면서 소나기까지 내렸으나, 대성회가 임박해지자 하늘이 다시 화창해지며 '기도의 능력'을 실감케 했다. ©이대웅 기자

3년째 3만여명 모인 예장 합동 '기도한국 2010'

예장 합동(총회장 서정배 목사) 주최 기도한국 2010 전국대성회가 20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전국에서 2만 5천여명(1부 청년·대학생 예배 8천명 포함)의 성도들이 모인 가운데 3시간 동안 개최됐다.

3회째를 맞은 올해 기도한국은 6725 60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모여든 성도들은 특히 천안함 폭침 이후 긴장이 고조된 한반도의 평화와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이날 대성회는 CTS TV를 통해 전국과 전세계에 생중계돼 거리나 여건상 참석하지 못한 교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정해진 기도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

'기도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기도한국 2010은 소망과 회복, 능력 등 3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설교를 전한 목회자들도 한층 젊어졌다.

1부에서 '소망의 메시지'를 송태근 목사(남강교회)가 전한 것을 비롯해 2부 '회복의 메시지'에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3부 '능력의 메시지'를 장봉생 목사(서대문교회) 등이 각각 맡은 것.

특히 1부에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를 놓고 말씀을 전한 송 목사는 "1세대가 목숨을 바쳐 세운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며 "우리는 60년 전 전쟁으로 모

든 것이 파괴된 원조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원조를 베푸는 나라가 된 유일한 나라"라고 강조했다. 송 목사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힘이 없어졌는가"라고 반문한 뒤 "지금은 그냥 기도 가 아닌, 더 강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고, 그냥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해야 한다"는 말로 성도들이 더욱 기도에 힘써줄 것을 당부

나라와 민족, 교단의 부흥과 교회 위해 기도

했다. '기도한국'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다양한 기도의 시간이 이어졌다.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끝나면 목회자들이 나와 구체적인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식의 순서가 이어졌다. 1부에서는 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2부에서는 교단의 부흥과 한국교회를 위해 각각 기도했다.

대성회에 앞서 서정배 총회장(대회장)은 "기도한국을 통해 전국 교회에 기도운동이 확산되고, 기도로 문제를 풀아가는 성숙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며, 하나님의 음

성을 기다리고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란다"고 개회사했다.

길자연 목사(대표위원장)는 대회사에서 "기도한국이 일회성 이벤트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집회를 통해 하나님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리라 믿고 고백한다"며 "오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단,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모든 환란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석영 총회장(예장합신)과 유만석 총회장(예장백석), 김대기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감경철 회장(CTS) 등은 축사를, 김영우 재단 이사장(총신대), 하귀호 목사(GMS 부이사장)는 격려사를 각각 진행했다.

김인기 목사(성장교회)?정삼지 목사(제자교회)?박원영 목사(서울나들목교회)는 각각 1-3부 사회를, 김삼봉 부총회장(대한국회)은 축도를 했다.

이날 대성회 1시간 전인 오후 2시부터는 박인용 목사(월드와이드교회)가 비전 메시지를 전한 청년·대학생 예배가 드러졌다. 헤리티지와 디스아플스, 새에덴교회 찬양대, 길하나 교수, 가수 노사연 씨 등은 각각 특별찬양을 드렸다.

(이대웅 기자)

이재철 목사 "교회는 동성애 '비정상성' 말해야"

사회적 담론에 가타부타 할 수 없는 분위기 지적

이재철 목사는 17일 양화진 문화원이 주최한 이어령박사와의 3차 대담에서 동성애 문제에 대한 '기독교적인 시각'을 정확히 설명했다.

이 목사는 최근 동성애 설정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SBS <인생은 아름다워>를 언급하면서 "사회적 담론으로 하나의 유행이 떠오르게 되면, 그 담론에 대해 어떤 가타부타 이야기도 할 수 없는 이상한 사회 분위기 속에 있다"며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성하면 진취적이고 용기있는 사람이 되고, 반대하면 보수적이고 닫힌 사람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금연(禁煙)'에 대한 설명으로 이 목사는 이를 뒷받침했다. 금연운동이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담배피는 사람들의 '권리'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고, 흡연자들만을 위한 공간도 어디나 따로 있다. 하지만 담배를 피는 사람들의 자유를 인



이재철 목사

정한다고 해서 그 위험성마저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목사는 "동성애자들이 소수자 인권이나 권익을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은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라는 것이 '비정상성'을 가짐은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가 합일체를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하셨다"고 잘라 말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은 자체가 신성하고 하나님의 복이며, 창세기 1장에서 이성(異性)간 에 한 몸을 이루는 일을 결혼

으로 정의하셨고, 부부가 되는 일은 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추상적, 포괄적 의미를 넘어 성적 존재로 창조된 남녀가 성적 합일체를 이루는 것임을 분명히 일깨워 주셨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텍사스에서 동성간 이혼법이 통과된 사실도 언급하면서 "지금 문헌이나 방송에 등장하는 동성간의 사랑은 모두 아름답고 환상적"이라며 "동성간에 결혼하면 다 천국일 줄 알았는데, 현실에서는 문제가 있었고 이혼법이 결국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성애자들을 따뜻한게 사랑으로 포용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고 인권을 지켜줘야 하지만 적어도 비정상성은 교회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그 분들을 이성애자로 치유시키는 길로 인도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

한국-스와질랜드 지도자들, '신앙 안에서' MOU



김영진 의원의 구두자 다미니 스와질랜드 국회의장과 MOU를 체결하고 있다.

의회선교연합과 한-아 친선 구두자 다미니(H.R.H. Prince Guduza Dlamini) 스와질랜드 선교협회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진(민주당) 의원은 15일 국회의장과 프란시스 다미니(Prince Francis Dlamini) 국회의

원 일행을 초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진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아프리카대륙신교회 김중양 선교사, 아프리카대륙신교회 노귀영 이사, (사)국가조찬기도회 장현일 사무총장 등 한국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했다.

(사)아프리카대륙신교회는 현재 남아프리카 스와질랜드 왕국 정부와 공동으로 "스와질랜드 크리스찬대학"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국인 선교사와 한국의 기독교인이 후원하여 세워지는 스와질랜드 최초의 대학이다.

김영진 의회선교연합 상임대표는 "오늘 하나님께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셨고 복음안에서 파트너십을 가지고 양국 발전을 위한 국회의장님의 사역에 감사드리며 늘 연대의 뜻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류재광 기자)

www.seattleonnuri.com

담임목사 청빙 공고

워싱턴주 Lake Forest Park에 위치하고 있는 시애틀 은누리교회 (미국 C&MA 교단 소속)에서는 지난 16년간 사역을 담당해 오신 김제은 담임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후임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조건

- ①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② 전임목회 경력 5년 이상 되시는 분
- ③ 한국어와 영어 구사가 가능하신 분

제출 서류

- 담임목사 지원서 (Application Form) : 양식은 은누리교회 website, www.seattleonnuri.com에서 download
- 최근 인물 사진 1장
- 자기 소개서 - 본인의 성장 배경, 신앙 간증, 목회 비전, 지원 동기 포함. (2~4 pages)
- 소속 교회 최근 주보 1장
- 설교 2 회분 (CD, DVD, 또는 Website Link)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제출 장소:

Onnuri Church Attn: PSC Chair
20150 45th Ave NE Lake Forest Park, WA 98155-1710
Tel: 206-371-5934 (PSC Chair)
Email: psconnuri@gmail.com
(PDF 파일이나 워드파일로 서류 제출 및 문의 가능)

제출 기한: 2010년 9월 30일

GLOBAL VISION BANK

글로벌 비전 뱅크

기증하신 분은 영수증을 발급받아 세금공제를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에서 선교사역에 필요한

자동차 도네이션 하실 분을 긴급히 찾습니다.

도네이션된 자동차는 글로벌 비전 뱅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귀하께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동차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글로벌 비전 뱅크는 케리그마(말씀선포), 디아코니아(섬김), 디다케(교육)의 통전적(Holistic) 선교 훈련을 지향하며, 21세기 이 시대의 지구촌 교회들이 성령의 새바람으로 부흥의 시대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글로벌 비전 뱅크로 연락 바랍니다

Tel. 213-718-1512

글로벌 비전 뱅크 상임 대표 표세흥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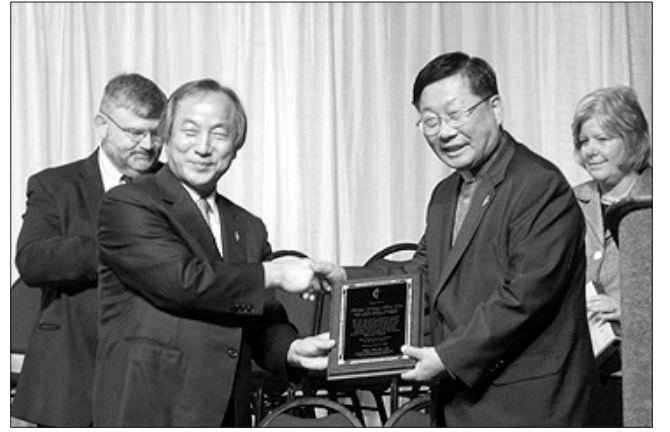
UMC북일리노이연회-기감서울남연회 결연

북일리노이연회에서 공식 자매결연 축하

연합감리교회 북일리노이연회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가 자매결연을 맺었다. 13일부터 16일까지 일리노이 주 세인트찰스 시에서 열린 북일리노이 연회 공식 일정 가운데 15일 오후 1200명 연회원들의 박수를 받으며 서울남연회 대표사절단

이 입장했다. 서울남연회의 임영훈 감독은 “미국은 126년 전, 아펜젤러 선교사를 한국에 보내어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 또 한국전쟁 때에 참전해 한국을 보호해 주었고 한국이 가난할 때에 원조해 준 고마운 나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현

재 한국 감리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믿는다”면서 “양 연회가 서로 이해와 협력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을 맺었다. 이번 자매결연을 위해 한국에서는 임영훈 감독과 함께 15개 지방회의 감리사들이 방문했다. 서울남연회는 최근 인도네시아감리교회 제2연회와도 자매결연을 맺는 등 해외의 감리교회와 비교적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한편, 양 연회의 자매결연이 성사된 것을 기념하는 예배가 16일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에서 드려졌다. (김준형 기자)



북일리노이연회를 대표하는 정희수 감독(좌)과 서울남연회를 대표하는 임영훈 감독(우)이 자매결연을 축하하고 있다.

한센병 마을에서 만난 지극히 작은 자



한센병자 마을로부터 12명의 어린이가 힐송크리스천학교에 도착했다.

세界的 지붕이라 불리는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맥, 산스크리트어로 히말라야는 “눈이 사는 곳”이란 뜻이라고 한다. 눈이 사는 곳이란 말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제외해 버리면 사람이 그만큼 적게 사는 곳이다. 세계 유일인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맥, 산스크리트어로 히말라야는 “눈이 사는 곳”이란 뜻이라고 한다. 눈이 사는 곳이란 말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제외해 버리면 사람이 그만큼 적게 사는 곳이다.

장으로 있으며 어린이들을 기독교 리더로 키우고 있다. 개교 당시 20여명에 불과하던 학생이 이제 80명으로 늘었다. 순복음사랑교회는 지속적으로 이 학교를 후원하고 있다. 송 목사가 한센병자 부모들에게 “올해 6명의 어린이를 데려 갈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음날 12명의 어린이가 나왔다. 부모들이 눈물을 흘리며 “제발 우리 아이를 데려가 달라”고 애원했다. 송 목사는 12명을 모두 데리고 나와 힐송크리스천학교에 입학시켰다. 이 어린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건강을 검진받고 먹고 자면서 학업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한다. 이 어린이들이 제대로 생활하며 공부하기 위해서는 한 어린이당 매달 50불의 비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송 목사는 이 어린이들

송성자 목사, 인도 어린이들 위한 사역에 도움 요청

라고 볼 수도 있을까? 그리고 그 적은 수의 사람 가운데 한센병 환자들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는 한센병자 마을이 있다고 한다. 순복음사랑교회 송성자 목사가 인도를 선교한지는 8년째다. 이 한센병자 마을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은 3년이 됐다. 전염을 막기 위해 이 마을에 격리되다시피 해 살아가는 한센병자들은 그 어떤 적절한 치료나 인격적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죽기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형편이다. 그런데 이들에게

레 방문했을 때, 마태복음 25장의 “지극히 작은 자”가 떠올랐다. 이들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란 강한 감동이 오자 이 어린이들을 어디로 데려 나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 마침내 송 목사는 이 어린이들을 인도 내륙의 힐송크리스천학교로 데려 가기로 했다. 이 학교는 얼마 전 한도 학교이던 것을 순복음사랑교회가 5천불을 기탁하며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독교 학교로 다시 개교한 곳이다. 현재 인도 현지인 목회자가 교

을 후원해 줄 사람이나 단체를 찾고 있다. 학교 자체의 재정 상황도 열악하기 때문에 학교를 후원해 줄 사람도 필요하다. 송 목사는 “이 어린이들 가운데 선다 심과 같은 위대한 기독교 지도자가 나올지도 모른다”면서 “미주 한인들이 인도 어린이들의 학업, 학교, 한센병자 마을을 위해 기도와 후원을 아끼지 않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문의) 송성자 목사, songsung-ja@hotmail.com, 847-918-1700 (김준형 기자)

“미술로 복음 전하자”에 의기투합

“백문이 불여일견” 백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다.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인간이 볼 수 없지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가 되셨다. 이 예수를 그려낸 한 폭의 성화, 한 점의 기독교 공예품이 시각을 통해

면서 활동을 재개하게 됐다. 21일 스코키한인교회에 모인 목회자들은 미술 선교의 방향과 가능성, 비전을 토론하면서 선교회의 기초를 다시 잡는 시간을 가졌다. 민 목사는 발제를 통해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창조한 위대한 예술가이며, 창조할 뿐 아니라 ‘보시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도 미술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영향을 모두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민 목사는 반박했다. 한편, 화란 개혁파 목회자의 아들이었던 반 고흐는 신학교에 나체하면서 목사를 단념하고 한 광산에서 선교활동을 했으나 그를 파송한 선교회에서조차 고흐의

목회자들 모여 할렐루야미술선교회 재출발

우리 인간에게 줄 수 있는 감동과 영적 깨우침은 결코 적지 않다. 1996년 창립돼 10여 차례에 걸친 전신회와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해 온 할렐루야미술선교회가 재출발한다. 민동진 목사를 중심으로 창립된 이 선교회는 2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며 타주에서도 참여할 정도로 뜨거웠지만 민 목사가 최근 3년간 개인전 준비와 작품 활동에 매진하면서 활동이 뜸해졌다가 올해 초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과 의기투합하

좋았다”고 비평까지 하시는 비평가”라고 정의했다. 그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며 동시에 각자 받은 예술적 은사를 활용해 하나님께 기쁨 받으시는 아름다움을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목사는 “중세시대 기독교 미술은 역설적으로 우상 숭배의 길을 여는 부정적 역할을 했고 이로 인해 종교개혁자들은 미술의 해자다가 올해 초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진 목회자들과 의기투합하

정서적 불안을 이유로 후원을 중단하자 고흐는 미술가로 전업했다. 민 목사는 “만약 고흐가 기독교 미술을 했더라면 그의 인생은 물론 기독교 미술이 얼마나 풍성했을까”라고 물으며 교회가 기독교 미술 인재 양성과 후원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목사는 이를 위해 신학교 안에 기독교 미술과가 신설되거나 이와 관련된 과목이 개설되는 것, 신학교나 교회 안에 미술전시관이 개관되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할렐루야미술선교회가 미술 선교에 뜻을 모은 이들로부터 재출발한다. (뒷줄 좌측부터) 명병헌 목사, 박상진 목사, 이태영 목사, 김아곱 목사(앞줄 좌측) 전 진희 권사, 민동진 목사

이날 모임에는 미술에 큰 관심을 가진 박상진 목사(임마누엘침례교회), 명병헌 목사(스코키한인교회), 이태영 목사(프링필드한인교회), 김아곱 목사(순생명교회)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발제한 회장 민동진 목사는 노던일리노이대학을 졸업하고 The School of Art Institution of Chicago에서 미술을 공부했다. 이후 노던배티스트 신학교에서 M.Div.를 마친 후 목회자가 됐으며 맥코믹신학교에서 D.Min.을 마쳤다. (김준형 기자)

- ✓ Smog Check
- ✓ Brake Service
- ✓ Tune-Ups
- ✓ Computer Diagnostc
- ✓ 전기계통
- ✓ 30/60/90K Service
- ✓ A/C Service

L.A. AUTO 정비

24hr 213.247.6657

※ 목회자 특별 할인해 드립니다.

엘에이오토정비 320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90006

INSURANCE & RENT CAR, 사고처리

Tel. 323-735-3180

Fax. 323-730-0112

OPEN 7 DAYS A WEEK

Mon - Fri
A.M 7:00 ~ P.M 7:00

Sat - Sun
A.M 8:00 ~ P.M 6:00

SMOG CHECK
\$10 off

REPAIR
\$10 off

남가주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는

교회 및 선교회 리스트

갈릴리선교회
 담임: 한천영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youth 오전 11:00 토요연합세례 오전 6:20
 2212 S. Western Av, LA., CA 90018
 T. (323) 735-6412 / www.gmcchurhc.com

감사한인교회
 담임: 김영길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장애인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장년부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매일 5:30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228-9540 / F. (714) 521-4636

구세군나성교회
 담임: 김옥균 사관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20
 수요일예배 & 성경공부 오후 6:00
 93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0-0714

나성소망교회
 담임: 김재을 목사
 주일기도회 오전 9:50 주일성경공부 오후 12:45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모임(중등부) 오후 4시
 1000 Venice Blvd, LA, CA 90015
 T. (213) 550-7377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진유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저녁 7:30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나성열린문교회
 담임: 박현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2:30
 2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192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413-1600 / www.laopendoor.org

나성한인감리교회
 담임: 남강식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Youth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3부 EM 오후 1:45 수요일예배 오후 7:20
 4부 청년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433 S. Normandie Ave. LA, CA 90020
 T. (213) 365-6191 / F. (213) 365-6291

남가주동신교회
 담임: 손병렬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청년)예배 오후 1:30
 2121 E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 김요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2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6:00
 성경공부 주일오전 11:00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T. (213) 215-8523 / www.scrdm.org

남가주명성교회
 담임: 정해진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찬양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화-토) 오전 5:30
 중고등, 유년부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11 S. Mariposa Ave., LA, CA 90004
 T. (213) 383-9182, F. (213) 251-9182

남가주빛내리교회
 담임: 박홍덕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5:30
 2부예배: 오전 11:30 Youth 예배: 오전10: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영어EM예배: 오후 2:30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대흥장로교회
 담임: 권영국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청년예배 오후 1:00
 2부예배(영어) 오전 9:45 중고 주일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년부 주일예배 오전 11:0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www.dkpc.org

동양선교회
 임동선 원로 목사
 1부예배 오전 7:00 4부예배 오전 12:15
 2부예배 오후 8:30 5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0:15 E.M 오후 12:00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 (323) 466-1234 / www.omic.org

들로스선교회
 담임: 서보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중보기도회 오전 10:30(목)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 www.douloschurch.com

드림교회
 담임: 이성현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EM예배 오전 11:00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미주성산교회
 담임: 방동섭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오전 10:30
 2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1:00
 1111 W. Sunset Blvd. LA CA90012
 T. (213)-975-1111 / F. (213)975-1357

미주양곡교회
 담임: 지용덕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519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F. (213) 380-9378

삼성장로교회
 담임: 신원규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20
 2부예배 오전 9:40 4부예배 오후 12:50
 5600 Carbon Canyon Rd, Brea, CA 92823
 T. (714) 524-2029 / F. (714) 524-8844

소중한사람들
 대표: 김수철 목사
 찬양나눔예배 매일 오전 7:00(다더튼 47 Crocker St.)
 1부기도회 오전 7:00
 2부서터예배 오전 9:30
 1856 W 11th Place, LA, CA 90006
 T. (213) 385-4515 / F. (213) 385-5474

새생명오아시스교회
 담임: 김일형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EM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1:00
 3119 W. 6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2939

새생명장로교회
 담임: 정철 목사
 1부EM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화-주일) 오전 6: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성경공부 오후 8:00
 23662 Birtcher Dr, Lake Forest, CA 92630
 T. (949) 458-9191 / F. (949) 459-9158

새창조교회
 담임: 최학량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찬양경배 오후 1:30
 23814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325-0501 / F. (310) 325-4282

세계성경장로교회
 담임: 강신권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310) 793-2297, 2298(Fax)

세계소망교회
 담임: 오세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주일찬양 오후 1:30 새벽예배 오전 5:30
 824 W.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745-9191

심있는교회
 담임: 이철기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새벽기도(토) 오전 6:00
 901 W Wilshire Ave, Fullerton, CA 92832
 T. (714) 293-1257

시온성중양교회
 담임: 박상규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2부예배 오전 11:00 (토) 오전 6:00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995-2868 / F.(714)995-0169

아름다운교회
 담임: 고승희 목사
 1부예배 오전 10:00 3부EM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안디옥장로교회
 담임: 지윤성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영어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새벽예배 오전 5:30
 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 오후 8:00
 2720 Montrose Ave., Montrose, CA 91020
 T. (818) 249-2871 / F. (818) 249-0516

얼바인침례교회
 담임: 한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45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45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영생장로교회
 담임: 김해성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4부예배 오후 1:35
 2부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오렌지새영교회
 담임: 임병철 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후 1:00 (토) 오전 7:00
 설모임 오전 7:00(토)
 315 S Knott Ave #206 Anaheim, CA 92804
 T. (714) 990-1008

은혜한인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00
 2부예배 오전 10:00 4부예배 오후 2:30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인랜드교회
 담임: 최병수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110 N.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임마누엘헬로십교회
 담임: 안총기 목사
 주일학교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15
 중고등부 오후 1:15 청년주일학교 오후 1:15
 14300 Leffingwell Rd. Whittier, CA 90504
 T. (562) 944-8082

에바다선교회
 담임: 이순준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청년예배 오후 7:00
 (월-금) (1,3,5째주 토요일)
 2221 W. Olympic Bl.,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2671

예수마을교회
 담임: 정인호 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금요중보기도 오후 1:00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213) 739-0515

월서크리스천교회
 담임: 엄규서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1:30
 2부EM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634 S. Normandie Ave,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2-5658

주님세운교회
 담임: 박성규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20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2:40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님찬양교회
 담임: 장준근 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2511 3rd Street, Los Angeles, CA 90057
 T. (310) 940-1646 / F. (714) 397-2875

축복교회
 담임: 김인경 목사
 1부예배 오전 9:30(영어) 청소년예배 (토)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30 리더십 트레이닝
 Cell Church (금) 오후 8:00 (토) 오전 10:30
 2080 La Puente Rd., Walnut, CA 91789
 T. (909) 598-7731 / F. (909) 594-5955

충현선교회
 담임: 민종기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4565 W. Colorado Blvd., LA, CA 90039
 T. (818) 549-9191

코너스톤교회
 담임: 이종용 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토) 오전 5:3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LA,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파사데나장로교회
 담임: 성현경 목사
 영어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스페인어예배 오전 10:00 (토) 오전 6:00
 한국어 오전 10시(일로주심) 수요일예배 오후 7:45
 점오 12:30 분담 금요찬양 오후 8:00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하나로교회
 담임: 박문환 목사
 1부예배 오전 8:40 찬양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0:4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후 2:00
 3233 English Rd. Chino Hills, CA 91709
 T. (909) 464-9210 / F. (909) 548-4536

함께하는교회
 담임: 최성철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화-금) 오전 5:30
 3부영어예배 오후 1:00 (토) 오전 6:00
 14515 Valley View Ave, Suite T. Santa Fe Springs, CA 90670
 T. (714) 236-0256

헤브론교회
 담임: 강진웅 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3부예배 오후 1:45 수요일침례서트 오후 7:30
 4050 W. Pico Bl., Los Angeles, CA 90019
 T. (323) 735-8677 / F. (323) 735-9606

SL 임마누엘선교회
 담임: 백지영 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오후 3:00
 찬양예배(위 기도)매일 오후 7:00
 SOLOMON UNIVERSITY 총장: 백지영 박사(Ph.D.)
 3921 Wilshire Blvd, #404-408 LA, CA 90010
 T. (213) 381-7755 / F. (213) 380-7755

김남수 목사, 스테판 에이너 박사 등 강사로 나서

NKPC 제39회 총회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고도다'

미국장로교(PCUSA)산하 전국 한인교회협의회(NKPC, National Korean Presbyterian Council) 제 39회 총회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코스타리카 산호세에서 열린다. 풍요롭지만 영적인 배고픔에 시달리는 지금의 시대, 문제의 근원은 '인간'이다. 지금의 때 사람을 찾는 갈구를 담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요4:35)"는 주제로 열

리는 총회가 진행된다. NKPC는 이번 총회를 '산하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10년간 역동적인 교회로 탈바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NKPC는 "사람들이 모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삶을 통해 보여주신 구원 사역의 도구가 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동원하는 교회를 이 시대는 원

한다."며 "주님께서 2천년 전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도 교회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이번 총회를 통해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힘을 얻기 바란다."고 전한다. 총회에는 3백여명이 참석했다. 공식적인 일정은 22일 오후 7시부터 시작된다. 김남수 목사(프라미스교회 담임), 스테판 에이너(컬럼



비아 신학대학) 박사, 신정인 목사(NKPC 선교협력위원회 위원장), 금상호 선교사(코스타리카 현지인 선교사)가 주제 강의를 전하며 이 스테 목사(총회장), 정인수 목사(부

총회장)가 설교한다. NKPC는 PCUSA 내 NACP(National Asian Presbyterian Council)에 속한 협의체로서 1972년에 조직됐다. 현재까지 400

여 개의 회원교회와 6만 명의 교인을 가진 규모로 성장했다. NKPC는 PCUSA 교단 내에서 흑인교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회 그룹이다. <윤주이 기자>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제 28회 학위수여식



해외한인장로회 뉴욕장로회신학대학(원) 제28회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가 20일 오후 5시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번 졸업생은 교역학 석사 이경숙, 박성하, 김은중(수료), 신학사 김진형, 이희진(수료) 씨다.

이날 '모세의 사역'(출 7:1-1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송병기 목사(학장)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능력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탄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승리

한다."고 전했다. 축사한 안찬수 목사(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노회장)는 "학위나 자격을 얻었다는 마음이 아닌 성령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라."고 했다. 이어 최예식 목사(동문회장)는 격려사에서 "철저한 소명의식을 갖고 은사

교역학 석사 3명, 신학사 2명 졸업

를 활용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힘쓰라."고 전했다. 졸업생 답사한 박성하 전도사(뉴욕예일장로교회)는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자로서 저희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린다."며 교수들에게는 "좁은 길이

지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눈과 마음을 갖게 했다."며 감사를 돌렸다. 한편 이날 행사는 최문병 목사(학감)의 사회로 현영갑 목사(뉴욕노회 부노회장)가 기도, 조기봉 목사(동북노회 부노회장)가 성경봉독, 뉴욕예일장로교회 중창단이 찬양, 송병기 목사(학장)가 설교, 임선순 목사(총무

처장)가 연혁보고, 최문병 목사(학감)가 학사보고, 학장 송병기 목사, 이사장 이종길 목사가 학위수여, 학교에서 졸업생에게(공모상 김은중), 동문회에서 졸업생에게 선물증정, 안찬수 목사(뉴욕노회 노회장)가 축사, 이종길 목사가 축도했다. <오상아 기자>

선교지 어린이들 너도 나도 '예수님 믿으래요'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 청년닷컴에서 지난 5월 17일-29일 케냐 무베레, 갈레문양의 포콧족 거주지역에 단기선교를, 한여권 종교 등부에서 6월 14일부터 21일까지 멕시코 레오나비카리오, 프란시스 코 마이 마을에 첫 번째 단기선교를 다녀온 은혜를 전했다. 청년닷컴의 다섯 번째 케냐선교이기도 한 올해 선교에서 청년들은 황무지라도 생명력 있는 씨앗이 자라나듯, 지난 5년간 큰 변화가 없

으로 때론 긍휼의 눈물로 감당했다. 미용사역 또한 제법 익숙한 청년들의 능숙한 솜씨로 현지인들에게 기쁨이 됐다. 이번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멕시코 레오나비카리오, 프란시스 코 마이 마을에서 실시한 축구시합 리그를 위해 현지에서는 3개월 전부터 시합이 진행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을 유도하며 큰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번 시합을 관람하기 위해 지역 경찰청장이 직접 참석해

지나 몇 달간 멕시코 선교를 위해 세차, 구두닦이, 멕시코 나이트, 수세미와 비즈공예 등 다양한 펀드레이징을 해온 한여권 종교 등부 학생들은 오랜 기간 준비해 온 만큼 큰 은혜와 사랑을 느끼게 됐다고 전했다. 청소년들은 레오나 비카리오에 위치한 세광선교회와 함께 사역을 진행했다. 이곳에서는 선교회 센터 보수, 원주민 목회자 사무실 건축, 노후된 센터 복구 등 바쁘게 움직

연합교회 멕시코, 케냐 단기선교 다녀온 은혜 전해

보이던 선교의 씨앗이 어느새 훌쩍 자란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멀고 먼 곳, 이동에만 3일이 걸려 갈레문양에 도착한 청년닷컴은 매년 찾는 이들을 반기는 현지인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눌 틈도 없이 어린이 성경공부, 축구시합대회, 미용사역을 숨가쁘게 진행했다. 어린이 성경공부 사역은 매우 뜨거운 열기의 사막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청년들이 몸을 아끼지 않고 함께 뛰어놀며 어우러져 때론 기쁨

"축구대회를 통해 젊은이들이 나타내지 않고 활력을 얻으며, 범죄가 줄어 감사하다. 축구대회를 통해 지역사회가 하나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청년들은 '케냐 사람들과 아이들이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을 누릴 줄 아는 것을 배웠다' '자신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생각하게 됐다'면서 처음 참석한 대부분의 청년들이 내년에도 꼭 다시 올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였고, 마을 주민들을 위해 마을 화장실을 만들기도 했다. 단기선교팀의 방문이 처음이었던 프란시스 코 마이 마을에서 청소년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성인을 위한 영어수업을 섬기고 여름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다. 무엇보다 선교를 앞두고 두 달 전부터 배운 스페니쉬 찬양과 회화는 선교에 큰 힘이 됐다. 또 다른 팀은 미용사역팀으로 현지인들의 머리를 직접 다듬어 줄뿐 아니라 일주일 동안 미용 기술을 전수하고, 미용 도구를 기증했는데 이들은 이번 사역으로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며 감사해 했다. 이번 선교를 이끈 권혁래 전도사는 "하 나님께서 너무나 큰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모든 사역을 잘 마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박현희 기자>



케냐 현지인들과 함께.

여드름 완치!

[첫 상담 무료! 효과가 없을 경우 100% 환불 보장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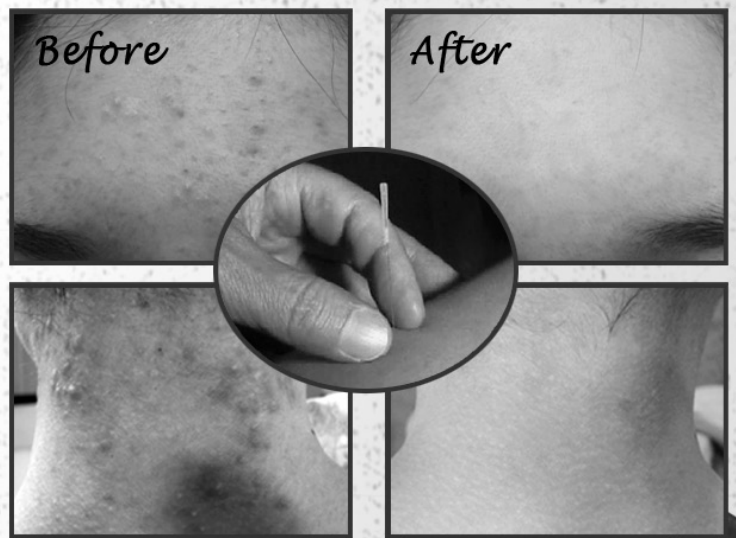
재발하지 않는 근본 치료법
침 + 해독 + Becare

몸 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BeCare요법은 피부 내면 치료를 통해 면역 체계를 작동하게 하여, 비정상세포(여드름)를 정상세포로 바꿔주는 치료법입니다. 그동안 Becare치료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지금까지 여드름 재발없이 깨끗한 피부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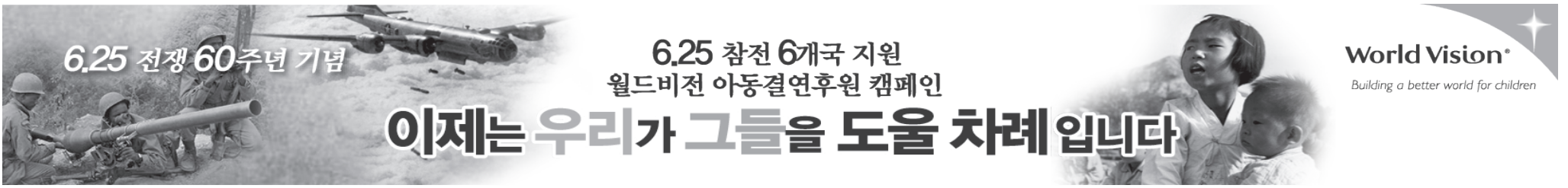
경산한외과병원

원장 류재규 경산 한외과 대학 교수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 Los Angeles, CA 9006 (삼호관광 몰 2층)



Tel. 213-380-0835



6.25 전쟁 60주년 기념

6.25 참전 6개국 지원
월드비전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도울 차례입니다

World Vision®
Building a better world for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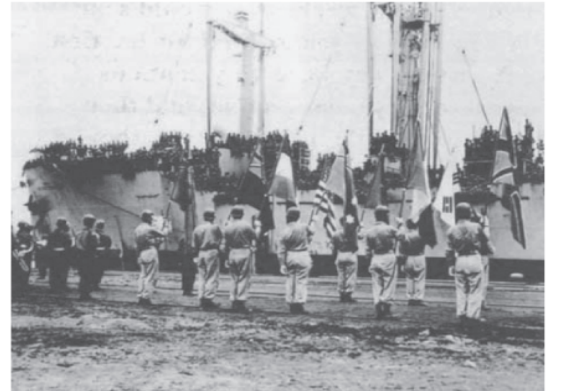
6.25 참전 6개국, 현재 그들의 삶과 월드비전 사역③



필리핀 아시아에서 최대 규모 지상군 파견



7,100개의 화산섬으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매년 20개의 태풍이 지나가며 폭풍 피해를 입고 있다. 350년 동안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았고 1898년부터 미국의 통치가 시작 되었지만 필리핀은 1935년 독립 국가로 탄생하게 했지만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했다. 1970년대 부터 이슬람 지역의 독립을 요구하는 게릴라 그룹의 납치와 살인과 같은 활동이 사회적인 불안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게릴라 반군과의 충돌로 인해 지금까지 12만 명의 사망자와 3백만 명이 피난민이 발생했다. 필리핀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도시와 변두리 지역간의 수준 차이가 크다. 전국민의 약 30%가 하루 \$1.5달러 미만의 빈곤선 이하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연인원 7,420 명의 보병 1개 대대 병력을 파견해 112명의 사망자, 229명의 부상자, 16명의 실종자와 41명이 포로로 잡히는 희생을 치렀다.



▲6.25 전쟁 당시 부상함에 도착하는 필리핀 파병 군인.

▲월드비전은 필리핀에서 미성년 아동들의 노동 착취 방지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월드비전은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 미성년 노동의 악영향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6.25 참전 6개국
아동결연후원
캠페인 참여를
원하는 교회나
기업체는
한국어 안내전화
1-866-육이오-1950
혹은
www.wvkor.org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가 정보(Country Profile)	필리핀	한국
전 체 인 구	86,200,000	48,636,000
평 균 수 명	70.5세	79세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32/1,000명	5/1,000명
문 명 륜	7%	2.1%
식수 사용 가능 인구	85%	92%
성인 HIV 감염자 수	11,000명	13,000명
빈곤 계층 비율	23%	4%
일인당 국내 총 생산	1950년	\$1,293
	2009년	\$1,746
종 교	기독교 92.5%	기독교 26.3%
	이슬람교 5.0%	불교 23.2%
	기타 2.5%	무교 50.5%



당면 과제
▷ 70년대 이후 이슬람 지역 분리주의자의 게릴라 활동으로 12만 명 사망
▷ 도시와 변두리 지역간 교육, 의료 수준 차이
▷ 전체 인구의 30%가 빈곤 계층

월드비전 활동 연혁
▷ 1954년: 고아원, 보육 센터 등기 활동
▷ 1960년대: 의료 진료선 통해 섬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 제공
▷ 1972년: 마닐라에 월드비전 사무소 개설
▷ 1990년대: 자연 재난 (지진, 화산 폭발) 구호 활동

현재 월드비전 사업
▷ 사업 부문 : 교육, 보건, 식량 및 농업개발, 식수 및 공중 위생, 경제 개발, 선교
▷ 49개 지역 개발 사업장, 104,050 아동 등록, 60만 명에게 수혜
▷ 15,182명이 아동 결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태국에서 제공한 100마리의 달걀을 통해 달걀 급식을 받고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 이 학생들은 6명이 한 조가 되어 번갈아 가며 달걀에 먹이를 주고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태국 육,해,공군 삼군 파병해 한국 도와



'자유의 나라' 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태국은 따뜻한 국민성과 수준 높은 문화로 잘 알려져 있는 국가다. 역사상 한반도 외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본 적이 없는 태국은 최근 인신 매매와 미성년 매춘의 중심지라는 오명을 안고 있기도 하다. 약 1백만 명의 아동들이 출생 증명서가 없으며 이로 인한 고아와 홀리스, HIV/AIDS 감염 등으로 1백만 명이 넘는 아동들이 특별한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밖에 젊은층 사이에 HIV감염률이 높아지면서 290,000명의 AIDS 고아가 있고 매년 2,000명의 신생아들이 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태어나고 있다. 태국은 6.25 전쟁 당시 육군(보병 1개 대대), 해군(프리트 함 7척), 공군(수송기 편대)을 파병해 129명의 사망자와 1,139명의 부상자 그리고 5명의 실종자가 발생하는 희생을 치렀다.

국가 정보(Country Profile)	태국	한국
전 체 인 구	63,400,000	48,636,000
평 균 수 명	73세	79세
5세 이하 유아 사망률	8/1,000명	5/1,000명
문 명 륜	7%	2.1%
식수 사용 가능 인구	99%	92%
성인 HIV 감염자 수	61만 명	13,000명
빈곤 계층 비율	2%	4%
일인당 국내 총 생산	1950년	\$848
	2009년	\$3,940
종 교	불교 94.6%	기독교 26.3%
	이슬람교 4.6%	불교 23.2%
	기독교 0.8%	무교 50.5%



당면 과제
▷ 2004년 아시아 쓰나미 재난 당시 3,900명 사망, 2,800명 행방 불명
▷ 인신 매매 및 미성년 매춘으로 인한 국가적 오명
▷ AIDS고아 29만 명, 매년 2,000명의 신생아들이 HIV에 감염 상태에서 탄생

월드비전 활동 연혁
▷ 1959년: 목회자 세미나 태국에서 활동 시작
▷ 1973년: 월드비전 오피스 방콕에 개설, 아동 결연 후원 프로그램 시작
▷ 1975년: 캄보디아 크메르 루즈 정권 설립 후, 태국내 캄보디아 피난민 구호 활동
▷ 1980년대: 태국과 캄보디아간 분쟁 당시 피난민들에게 교육, 식량, 직업 훈련 제공

▷ 사업 부문 : 교육, 보건, 식량 및 농업개발, 식수 및 공중 위생, 경제 개발
▷ 79개 사업장, 124,672명 아동 등록, 70만 명에게 수혜
▷ 10,855명의 아동이 결연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비전은 1950년에 한국 전쟁고아와 미망인을 돕기 위해 설립되어 현재 100여개국에서 긴급 구호 및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비영리 기독교 구호 기관입니다. 월드비전은 전체 모금액 가운데 11.4%를 행정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을 해외 개발 사업에 투자하는, 투명한 재정관리와 효과적인 사업으로 지구촌 아동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생명을 누리도록 돕고 있습니다.

World Vision®

월드비전 코리아데스크
1-866-육이오-1950
www.wvkor.org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한방병원
JASENG CENTER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분원

* 비수술척추전문 자생한방병원에서는 365일 토/일 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와 함께하는 척추건강 123캠페인
'풀러튼 분원'에서 365일 토/일 진료

청소년 자세교정 및 성장·비만 무료상담 받으세요!

자생한방병원 풀러튼 분원

- 보건복지가족부 지정 대한민국 유일의 척추전문한방병원
- 한국 자생한방병원 의료원장 역임 의료진 상주
- 한국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치료와 동일한 시스템
- 한 양방재활의학전문의 등10명의 의료진에 의한 365일 양한방통합치료

한양방 통합치료 센터

척추관절센터: 허리디스크, 목 디스크, 척추관협착증, 수술후유증, 오십견, 퇴행성관절염
특수클리닉: 턱관절장애, 청소년 측만 및 성장, 골프척추관절클리닉
웰빙센터: 비만, 불임, 산전산후관리, 여성질환, 만성피로, 보약원
양방검진센터: 디지털 X-ray, PACS, EMG/NCV, 체지방검사

24시간 전화예약 및 상담
714-773-7000

[척추건강 1·2·3캠페인 홍보대사 박지성]

여행자 보험 및 각종보험 취급 - 직장상해 및 교통사고 전문
www.jaseng.co.kr/www.jasengusa.com
1950 Sunnycrest Drive Ste 2000 Fullerton, CA 92835

김지성 칼럼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중국 음식점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짜장면입니다. 쫄쫄쫄쫄한 면에 갖

사회자가 날린 멘트가 압권이었 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드시는 것이 짜장면이나 자장면 이냐가 아니라, 맛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닐까요?”

TV를 보면서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소한 것 에 목숨을 거는 무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핵심을 볼 줄 아는 자가 아닐까 합니다. 전문성이란 말은 ‘핵심’ 을 볼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핵심이 보이지 않으면 주변잡기 만이 눈에 들어올 뿐입니다. 주 변잡기를 핵심으로 오해하고 그 것에 집중하는 자가 아마추어 요, 때론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

에서부터 까먹어야 된다’는 것 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 때문에 서로 죽이면서 싸우는 대 전쟁이 소민국에 일어 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을 표현한 작가는 ‘사 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무지’를 지적한 것입니다. 핵심을 꿰뚫 는 통찰력의 부재는 이렇게 허 망한 결과를 양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시대를 책임지며, 하 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하는 그 리스도인들은 ‘핵심을 꿰뚫는 눈’을 개발하기 위해 부단한 노 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핵심을 꿰뚫는 예리함이 사라지지 않도 록 영적인 자리에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

자장면인가, 짜장면인가

은 양념을 버무린 달콤 새콤한 감정 소스를 얹어 먹는 짜장면 은 언제나 우리의 입맛을 살리 는 식품입니다. 어느 중국 음식 점에서 식객들이 이 짜장면을 앞에 놓고 갑론을박하는 것을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내용 인즉 ‘짜장면’이 맞느냐 ‘자장면’ 이 맞느냐라는 논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짜장면’이라고 불 리지만, 바른 음식명은 ‘자장면’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장 면’이라고 불어야 된다는 논리 가 있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짜장면’으로 불리고 있으니 굳 이 ‘자장면’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다는 노리가 팽팽히 맞서 논 쟁을 벌이는 장면이 재미있습니 다. 식객들이 침을 튀기며 설 전에 설전을 벌이고 있는 사이

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바로 ‘사 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무지’의 행위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동 화책 중 하나가 ‘걸리버 여행기’ 입니다. 걸리버라는 사람이 세 상을 여행하면서 겪는 일을 판 타지적으로 표현해 낸 우화적 인 동화입니다. 걸리버가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소민국’을 여행했습니다. 걸리버가 소민국 에 들어가서 바로 직전 소민국 은 엄청난 내전을 겪은 직후였 습니다. 온 나라 국민들이 두 패 로 나뉘어 피 튀기는 전쟁을 벌 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삶은 계 란을 까먹는 순서’ 때문이었습 니다. 한 패는 ‘삶은 계란을 위에 서부터 까먹어야 한다’고 주장 했고, 다른 패는 ‘삶은 계란은 밑

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것이 ‘핵 심을 꿰뚫는 눈’이라 할 수 있습 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능력’이 ‘핵심을 꿰뚫는 눈’ 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의 마지막 장인 4장에 앗시리아의 수도였던 큰 성을 니느웨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로 하나님 의 심판을 자초했던 그 중요한 이유를 하나님은 설명하십니다. “이 큰 성을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좌우를 분변하지 못 하는 삶이 바로 ‘핵심을 꿰뚫지 못 하는 눈’을 가진 자를 뜻합니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핵심을 꿰뚫는 안목’이 시급한 시대를 살고 있음을 부 인할 수 없습니다.

진유철 칼럼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기도원에 올라가 오랜만에 조 용한 침묵 속에 책을 읽으며 묵 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

럽고 따라가기 힘들 만큼 추진 력을 가진 변화로 변해가고 있 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는 뿌 리 깊고, 광범위하고 복잡하며, 예측 불가능한 데다 전 지구적 인 것이기도 합니다. 모더니즘 에서 포스트모더니즘, 현대에서 탈현대로의 거대한 변화의 조류 는 교회와 성도가 피할 수 없는 엄청난 격변입니다.

마이클 레젤은 ‘교회의 죽음 (The Death of Church)’을 통 해 스트레스와 불확실성으로 규 정되는 통제 불가능한 세상에서 목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교 회 지도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 니다. 그는 ‘변화의 힘을 이해하 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힘들에

적인 사고의 부모 세대와 모던 의 중년 세대와 포스트모던의 젊은 세대의 갈등이 존재합니 다. 전통과 모던, 그리고 포스트 모던의 복잡한 변화는 비단 교 회와 가정만이 아니라 교육, 종 교, 의학, 사업이나 직장 등 모 든 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변화 의 물결입니다. 더욱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익명성을 띠지만 역설적으로 친 밀하기도 한 가상적 현실에서 엄청난 아이디어와 파워를 만들 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변화 는 사람의 힘만으로는 감당해낼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함께 하면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은혜의 힘으

변화하느냐, 죽느냐

은 내용들을 접할 때면 기쁘고 감격스러웠고, 묵상하며 기도할 때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 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두 가지의 생각이 기도 가운데 떠 나지 않았습니 다.

첫째는 변화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사회가 전체적으로 거 대한 변화의 물결을 타고 있으 며 그 변화가 사회 곳곳에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하는 교 회는 내부적으로 그만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윌리엄 이섬(William M. Easom)은 이 러한 변화를 산업 시대에서 지 각 변동 시대로의 변화라는 말 로 풀이했습니다. 20세기 중반 부터 속도가 빨라지고 더 복잡 해진 변화가 오늘날에는 혼란스

로 변화하고 말 것이다.’라고 조 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변화를 위한 고통이 따르더라도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와 성도는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 로 변화를 올바르게 이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 가 복잡하며 그 힘이 미디어와 연결되어 견잡을 수 없을 정도 의 위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를 들면 교회 안에도 전통과 모 던, 그리고 포스트모던을 대변 하는 모습들이 뒤섞여 있습니 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재즈 공연처럼, 전통적인 율겐 연주 와 모던의 피아노 연주, 그리고 포스트모던의 전자 악기들의 연 주, 이런 것들이 함께 섞여 있습 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전통

로 변화를 올바르게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 세상의 변화를 이룰 때 가장 강력한 반대와 핍 박에 부딪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으 로 놀라운 변화를 주도하였습니 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권능으 로 가장 강력한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그릇이라고 비 유합니다. 그릇은 그 자체로 가 치가 있다기보다는 무엇을 담느 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그리스도인 그릇이 담을 수 있 는 최고의 가치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교회와 성도로 하여금 자신 있 는 변화의 주도자가 되게 해 줄 것입니다.

남성수 칼럼



남성수 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어린 시절 우리 집에는 텔레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TV

를 보기 위해 형의 손을 잡고 동 네 만화방에 가곤 했습니다. 만 화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형은 저의 입장료까지 지불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들어간 만화 방은 온 동네 아이들로 가득 찼 습니다. 만화방에는 만화를 보 러 온 아이들보다 텔레비전에 서 방영되는 만화영화를 보러 온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 런데 갑자기 텔레비전이 ‘찌직 직...’하며 화면이 흔들리고 잡 음이 들리기도 하면 앉아 있 던 우리들은 일제히 주인아저 씨에게 소리를 칩니다. “아저 씨, 화면이 흔들려요. 안테나 좀 잡아주세요...”

주인아저씨는 다른 동네 만 화방에 어린 고객들을 빼앗기 지 않기 위해서 부리나케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소리 를 칩니다. “잘 보이나?... 이제 됐어?” 우리들은 일제히 대답 을 합니다. “예, 잘 보여요...” 희미하고도 아련한 추억들입 니다. 그 어린 시절 배웠던 것 이 하나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을 보기 위해서는 안테나를 잘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 다. 바람에 안테나가 조금만 흔

들려도 화면은 흔들리고 소리 는 잡음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이 배움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린 이 되어 목회의 현장에 들어선

남께로 돌리기만 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내 삶 에 지시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지시를 받고 갈 때 그 길은 시

귀와 눈을 자극하는 감각적인 것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 들었습니다. 마음은 굳은살처 럼 딱딱해져서 하나님의 음성 을 빨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귀 와 눈을 닫는 것입니다. 아버지 의 음성은 세상의 소리들이 소 으면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소 리들을 들었던 모든 감각 기관 들을 닫고, 말씀과 기도를 통 해 영혼의 창을 열어야 합니 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 로만 들을 수 있는 아버지의 음 성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것 이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는 방 법입니다.

아련한 추억의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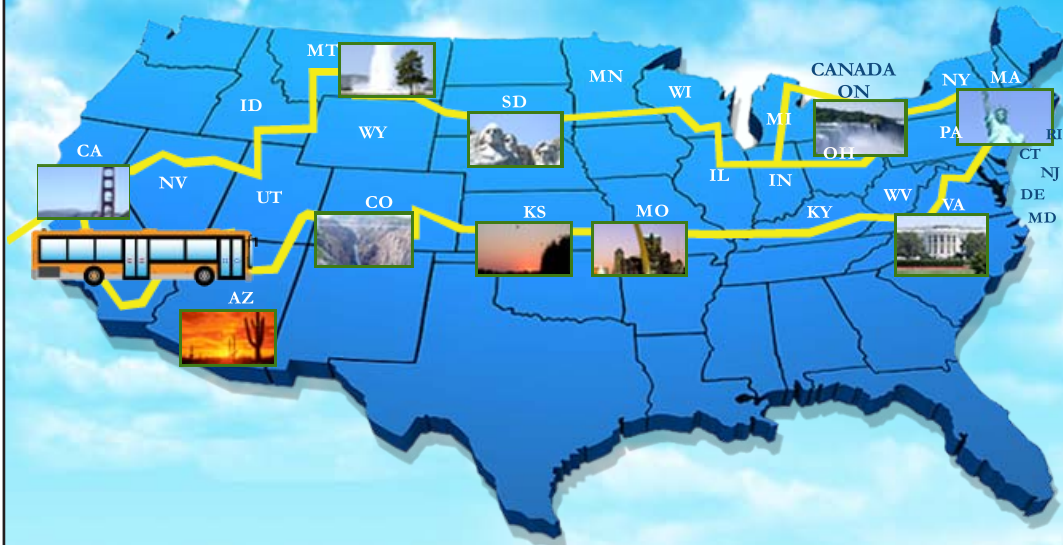
나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가르 침을 주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향해야 할 영적 안테나가 세상의 바람 때 문에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하 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귀 를 열고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

온의 길이며 하나님이 허락하 신 형통의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아는 데 잘 안됩니다. 우리의 귀와 눈 이 너무도 다른 것에 집중해 있 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음성 을 듣지 못해서 오는 안타까움 과 답답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미국 사람들의 평생소원!!!

미국대륙 횡단 여행



오는 7월16일 20박21일 여정으로 로스앤젤레스 출발!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3,000달러.

LA - 레이더호 - 솔트레이크시티 - 그랜드 티톤 국립공원 - 옐로스톤 국립공원 - 데블스타워 국립모뉴먼트 - 러시모어 국립모뉴먼트 - 크레이지호스 - 배들랜드 국립공원 - 시카고 - 나이아가라 폭포 - 허버드데 - MT - 뉴욕 - 워싱턴DC - 루레이동굴 - 세인트루이스 - 로키마운틴 국립공원 - 덴버 - 신의 정원 - 로얄고지 - 블랙캐년 - 아치스 국립모뉴먼트 - 캐년랜드 국립공원 - 모뉴먼트밸리 - 레이 파울(크루즈) - 플래그스태프 - 피닉스 - 치리카후아 국립모뉴먼트 - 톰스톤 - 사구아로 선인장 국립공원 - 알고네스 모래사막지대 - 데저트 핫스프링스 - LA

★ 7월16일 LA를 출발, 뉴욕을 최종착지로 하는 9박10일 여정의 서-동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500달러.

★ 7월25일 뉴욕을 출발, LA를 최종착지로 하는 12박 13일의 동-서 대륙횡단 편도 프로그램 참가비용은 2인 1실 숙박비용을 포함해 1,800달러.

관광 가이드에게 하루 10달러씩 통상 내게 되는 팁 없음! 대륙횡단 여행에 17차례나 나서온 여행 전문가이자 LA 여행클럽의 간사 지미 김씨가 이번 대륙횡단 여행의 인솔자로 나서게 됩니다!

28주 40도시 17국립공원 50명소 1만 Mile의 대장정. 전 일정 Bus로 이동하는 미국식 배낭여행.

여행 동호회 'LA 여행클럽'이 이지 LA투어와 손잡고 올여름 대륙횡단여행에 나섭니다.

문의:(213) 388-0777 또는 이메일 latravelclub@hotmail.com (EZ LA 투어 문의전화는 미 서부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 4055 Wilshire Blvd, #LLA3, Los Angeles, CA 90010 USA

현순호 칼럼



현순호 목사 전 미국장로교회 중서부 지역 한인교회 총무

인간이 사회를 변화 시킨다는 이론과 사회가 인간을 만들어 간다는 논쟁은 끝없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 사실 시대에 따라 어떤 이론이 더 강하게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 나는 커서 의사가 되겠다는 야망을 가졌으나 6.25 전쟁은 그 꿈을 송두리째 뽑아가고 다른 길로 가게 만들었다. 나만이나 아니다. 단체나 국가도 전

연 예상치 못 한 방향으로 가는 일이 너무도 많다. 6·25 사변: 우리 가족은 전쟁으로 너무도 많은 것을 잃었다. 작은 집이지만 평양에 있었다. 그 집을 마련하느라 부모님들은 얼마나 고생을 했던가, 그 안에는 남 여 다섯 형제들의 보금자리였으나 전쟁은 그 집을 송두리째 없앴다. 뿐만 아니다. 내가 집을 나갔다가 행방불명이 되자 오늘이나 혹시 내일이나 돌아오기를 염원하며 물을 떠놓고 빌기를 3년 이상을 했다. 더욱 바로 밑의 남동생은 미군의 무차별 폭격으로 집 앞에서 즉사했고 옆에 계시던 삼촌도 같은 참변을 당했다. 부모님은 아들 둘을 잃고 큰 보따리를 이고 지고 어린 세 딸을 데리고 남쪽으로 내려가 대전의 피난민 수용소에 들어가서 가마니 몇 장으로 바람을 막고, 비를 피하며 여러 해 사셨다는 슬픈 이야기를 후에 들었다. 6.25가 터지던 날부터 계속 반복되는 평양의 뉴스는 남쪽의 괴

뢰군이 북침을 해서 용감한 인민군은 반격에 나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고 대전을 지나 낙동강에 이르렀고 곧 부산이 떨어진다. 이유는 우선 공산당들의 말은 진실성이 없고 또 남쪽에는 든든한 국방군이 있고 미국이 있는데 쉽게 무너진다는 말은 빨갱이들의 수작으로 생각했다. 내가 7월 9일 주일 교회에서

6·25와 나

예배를 끝내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정보원에게 끌려 간 곳이 평양역이었다. 그 곳에서 화물차에 실려 낮에는 미군의 폭격을 피해 굴속에 숨었다가 밤에만 가기를 3일간, 결국 도착 한 곳은 원산 근처에 있는 덕원이었다. 그 곳 까지 가는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창문도 없는 화물차에서 대 소변을 보며 살아남았다. 그 곳에 도착한 수백 명이 배

당 받은 것은 인민군 군복 그리고 2개의 슈류탄과 소련제 소총이었다. 내가 그렇게도 싫어했던 공산당의 군인이 된 것은 나의 의지와는 정 반대의 길에 강제로 끼어 들어가 있었다. 그곳에서도 예수 자랑하다가 소대장에게 끌려가 권총을 이마에 대고 쏘아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으면서도 안 죽고 은혜로 살아남았다. 그 해 10월 중순에 우리의 부대는 중국으로 후퇴 하게 되었다. 떠나기 전날 밤 한 민가에서 식사를 하다가 몇 방의 총소리에 장교들과 공산단원들은 어디로 도망가고 쫓병만 몇 명 남은 것을 알기는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으면서였다. 어수룩하고 동작이 느린 나 같은 친구들 중에서 몇 사람은 인민군 겨울옷을 주고 민간인 옷을 바꿔 입고 산에 며칠 숨어 있다가 입성하는 국군에게 귀순했다. 포로 생활: 전쟁은 새로운 방향으로 갔다. 엄청난 중공군의 침입으로 국군과 미군들은 후퇴하

게 되자 포로들을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가 생겼다. 후퇴하면서 데리고 가지니 힘들고 죽어 자니 너무 많고 놓아주면 적군이 될 것이고..... 그 와중에 많은 포로들이 국군에게 처참하게 살해되었다. 그 희생자들은 모두 한 가정의 귀한 아들들이지만 전쟁 속에서 귀천이 없이 파리 목숨처럼 명분 없이 죽어갔다. 그 와중에서도 운이 좋아 살아남은 포로들은 미국 LST 배에 실려서 부산 근교에 와서 천막을 치고 가마니 깔고 담요 한 장으로 살아야 했다. 몇 달 후에는 부산도 인민군의 공격을 받을 위험을 느낀 미군은 포로들을 남쪽에 있는 외딴 섬 거제도도 이동시켰다. 그러나 그 곳에서는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다. 우익과 좌익의 싸움은 점점 가열되어서 잔인하게 죽이고 죽였다. 더욱 공산당원들은 기독교인들을 더 잔인하게 죽여 매장하거나 쓰레기통에 넣어 강에 갔다 버렸다. 그 속에서도 나는 살아남았

을 뿐 아니라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했다. 전쟁에서 얻은 것: 전쟁은 없어야 한다는 평화주의자가 된 것이다. 또 있다. 생존의 존엄성이다. 살아있다는 그 자체 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마치 미국의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쓴 '바람과 함께 살아지다'에 나오는 주인공이 그 무서운 전쟁 통에 너무도 배가고파 남의 무밭에서 무 한 자루를 뽑아 들고 외친다. "도둑질을 해서라도 살아야 한다" 라는 생존의 절규다. 나도 6·25의 전쟁에서 생존의 의지가 강하게 다져져서 그 후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감당할 수 있고 더욱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자세가 되었다. 6·25 전쟁으로 내 꿈도 형제도 고향도 친구도 잃었으나 얻은 것도 있다. 즉 환경이 나의 꿈과 목적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을지라도 그곳에서 오탁이처럼 다시 일어나 새로운 돌과구름을 찾아 멋지게 살아가는 오탁이 삶이다.

민중기 칼럼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왕 느브갓네살의 통치를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나무 멩에를 만들어 이것이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의 멩에라고 외치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년 만에 구원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쇠로 된 멩에를 만들어 백성에게 다시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느브갓네살이 쇠 멩에가 되

어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것이요 들짐승까지도 다스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짓선지자 하나가 올해 안에 죽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2개월 만에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와 거짓선지자

중대성을 간과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은 하늘에 사무쳤고, 긴 역사를 통하여 저질러진 것입니다. 약 500년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70년 동안 황무하여 땅

예레미야와 하나님

하나님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두 선지자는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예언하였지만 구원의 시공간은 많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2년 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만에 구원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은 순전히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말을 말씀으로 둔갑시킨 하나님 선지자는 거짓으로 백성들이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았습니다. 죄를 범한 백성들이 통회해야 하는데, 그는 교만한 왕과 자고한 백성이 뉘우칠 기회를 주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와 달리 죄악의

이 안식을 누리게 되었다고 역대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얼마나 심각한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회개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십자가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차이는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고통이 없는 성취는 없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고난의 눈물과 기쁨과 피가 없이 세워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 몫 이상의 십자가를 지었기에 현재가 있는 것입니다. 70년 이후에 국가의 회복이 있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도 정당하고 의롭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 그리고 신실한 성도의 눈물과 피와 기쁨이 오늘의 힘 있는 교회의 바탕입니다.

김한요 칼럼



김한요 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대단하다. 축구경기가 열리는 현지는 물론이거니와, 이곳 미국에도 그 열기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 스테이플 센터에서 모여 응원하는 한인교도들의 극성에 교회마다 모여서 응원하는 모습은 더 이상 LA만의 모습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모이는 곳은 조국 시청 앞 광장에서부터 해외에서 꼭두새벽 가정집에 모여 응원하는 곳까지 온통 월드컵 열기로 가득하다. 나는 이것을 '월드컵 부흥'이라 부르고 싶

다. 왜냐하면 이것이 정확하게 부흥의 현상이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마다, 월드컵 이야기로 꽃을 피운다. 한 경기가 끝나면 다음 경기 스케줄을 확인한다. 경기가 새벽에 있어도 야랑곳 하지 않는다. 그리고 혼자 보지 않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할 일도 없다. 사람들 얼굴마다 흥조가 돌고, 즐거운 미소와 행복이 가득하다. 선수들의 이름을 잘 모르고, 그들의 경력을 몰라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같은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 우리 편이며, 우리 편이어서, 거의 무조

월드컵 부흥

한다. 그리고 목이 쉬어라 "대한민국"을 외치며 응원하며, 괴성을 지르며, 골 때문에 울고 웃는다. 축구할 때는 모든 다른 활동들을 멈춘다. 회사마다, 자국의 축구하는 시간은 자동 휴식시간이다. 이때만큼은 사사로운 감정도 없다. 사장과 종업원이 하나 되고, 원고와 피고가 친구된다. 한 톱 쏘는 너그러운 사람들이 즐비하고, 자기 집을 개방하며 누구나 환영한다. 이상한 메이크업에 우스꽝스러운 변장도 조롱의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귀엽게 봐주고, 흥을 돋우는 이유가 된다. 봐주지 못할 사람도 없고, 용서 못

간적인 애정공세와 전폭적인 지지를 마다하지 않는다. 남씨 집안에서 이 달에 아들이 태어난다면 그 아들의 이름은 '아공'이다. 한씨 집안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당연히 '국승'이다. 우씨 집안 아들 이름은 '승갑'이다. 이처럼 진정한 부흥은 정확하게 월드컵 대신 '예수'로 바뀌면 이루어진다. 예수 때문에 울고, 예수 때문에 웃는 세상! 모든 것이 예수 중심으로,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친다. 예수 때문에 오르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다. 이런 세상, 상상해보라. 가슴이 뛰지 않는가?

기독일보, 아주관광의 협업 프로모션에 의한 특별가격!



출발일: 9월 27일, 10월 25일



기독일보와 아주관광이 함께하는

성지순례

Table with 2 columns: '이스라엘 6박 7일' and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 10박 11일'. Includes prices in \$2800/\$2150 and \$3300/\$2599, and lists of destinations.

- 1. INCLUDE: 갈릴리 유람선, 호텔/차량/식사 비용, 가이드, 국제선 항공권
2. EXCLUDE: 비자 FEE, 이스라엘 출입국세, 뱃산으로의 국경통과사, 실로암 입장료
3. OPTION: 시내산 낙타등반, 흥해해저 수족관, 가이드/드라이버 TIP, 식당 TIP, 음료, 기타 개인 소비비용

※ 자세한 일정과 호텔/식사 등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0404

Classified Add

20년 LA에서 가장 오랜 전통! 정육점의 원조 본점!

초이스 11가 정육점

USDA 프라이머와 초이스 생고기만 판매
양념 LA 갈비 / 교회, 단체 특별가격!

블랙앵거스 프라이머 갈비살, 갈비, 꽃살
차돌배기, 유기농 흑돼지 삼겹살 등...
< 자신있게 권해 드립니다! >

1134 S Western Ave #A5 Los Angeles CA 90006 (웨스턴 + 11가 12가 사이)
웨스턴 11가점 Tel (323) 733-4677

웨밀리 종합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 리스 · 중고차 매매

여러분의 중고차를 가장
좋은 가격에 매입하겠습니다
정직 · 신용 · 믿음으로 모시겠습니다

213.453.5900

김기형 123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인 직원이 한국식 포장이사를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23-582-2424
www.easy2424.com 8122 Maie Ave. #1, Los Angeles, CA 90001

한국방송+미국방송 동시 시청

TCO Satellite Inc. DIRECTV SATELLITE TELEVISION

지금 신청하세요!
1-800-489-8775

시내 · 장거리 · 귀국 · 사무실 · 창고이전 · 포장이사

행복이삿짐

고객에게 드리는 약속
항상 미소... 항상 정성... 항상 친절을...

작은일에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Tel. 323-733-2433

무보험 가족을 위한 희소식 \$40 한달 은가족

비싼 병원비가 걱정되십니까?
건강보험은 너무 비싸 가입을 못하십니까?

당신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하루에 1불 조금 넘는 적은금액으로 지키세요.
American Workers Association에서 제공하는 Pro Patient Advocacy 플랜은 비싼 병원비를 절감 해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 \$40 한달 은가족
지금 전화 주세요
제임스 정 장로 EXECUTIVE DIRECTOR

Tel: 213.725.7217 세일즈 하실분 모집

HANMI MEDIA 녹음실

- 개인, 성가대 CD제작
- 설교 - 교회- CD - DVD
- 영상-제작 편집

Tel. 323.661.8626 / hanmi-media.com
4418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lifornia 90004

Natural Hot Spring!

엘시노 천연유황온천

LA에서 제일 가까운 온천장!

- 교회 단체를 위한 예배실(컨퍼런스 룸)
- 가라오케, 바베큐 시설 완비
- 가족단위 위한 객실에 온천탕 구비
- 주변에 호수, 골프코스, 아울렛, 와이너리

Elsinore Hot Spring Resort (951) 674-2581/9997
316 N. Main St Lake Elsinore, CA 92530

SK smart-naephone

- ☑ SK한국전화를 설치, 한국전화번호를 받고 한국시내요금으로 미국, 한국 양방향 통화
- ☑ 서울전화번호만 누르세요
- ☑ 분당 20¢의 저렴한 요금

Taurus System USA Inc.
문의: 213-435-0608

반값으로 할수있다!

-차바디수리 50% 절약-

“획기적인 바디수리 시스템”
오토맥스 오토바디

213-265-8485, 213-388-4464
Main Office 2975 Wilshire Blvd 350 Los Angeles, CA 90010

철공 콘크리트

웬스/자동모터, 방범창, 계단, 철문, 자바라, 주차장 라인,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담장

213-327-9929

조경공사 랜드스캐핑

연못, 징검다리, 분수, 폭포, 정원 인조석, 자연석

213-909-5518

결혼 꽃 전문 꽃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집니다.

기니꽃집

36년 경력

- 결혼꽃 (Wedding)
- 생일 꽃다발 (Bouquet)
- 장례꽃 (Funeral)
- 각종 개업용 화환 및 화분 (Plants)
- 교회꽃 (Church)
- 파티꽃 / 풍성장식 (Parties / Balloon Decoration)

T.213-385-3377, Fax 213-383-2137 / 2500 Wilshire Blvd. #103A, LA, CA 90057

LANCE WANG 커튼

Window Treatment

타운의 유일한 디자이너 커튼 전문점
신세대 혼수 / 침대커버 / 쿠션
최고급 유럽원단
저렴한 가격 / 무료견적

Cushions, Bedding, Collectibles
213-384-5844, LA / 3개의 웨스턴
www.Lancewanginterior.com

블라인드 카텐 전문 업체 MR 박을 찾아주세요!

CITI BLINDS

Home depot 보다
싼 가격 보장

Toll Free (888) 383-2209
Direct (909) 821-9329
Fax (626) 443-3100

HunterDouglas windows fashions
Priority Dealer

655 Berry St. #F Brea, CA 92821
citiblinds@gmail.com

한국 ₩ ↔ 미국 \$

당일 동시 (고액 전문) 소액도 가능합니다
T. 213-388-4989
한국은행 ▶ 미국은행 송금서비스 가능

건축 설계 도면 디자인

이경신 Kyong S. Lee (Mary)
Interior & Landscaping Designer,
Architecture Web & Graphic Designer

ARCHITECTURE DESIGN
INTERIOR DESIGN
LANDSCAPING DESIGN
PERMIT DRAWING

E-2 Visa 및 투자 이민 가능하며, 언제든지 투자 상담 환영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해서 가족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매월 Income이 나올수 있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 컴퓨터 개인교습도 가능합니다.

Subject : Microsoft Office, Word, Excel, Powerpoint
Photoshop, Illustrator, Webdesign course

Tel. 213-284-4111

K.KOH 루핑

Llc. #717364

모든 종류의 지붕

상업용 주택 아파트

- Roof Maintenance • Roof Certification • Roof Cleaning
- Partial Wood Repair • Balcony & Walk way deck • Waterproofing

지붕 박사 윤박사가 잘 훈련된 직원들과 함께 최상의 Service를 약속 드립니다.

무료견적 · 보험가입업체
(714)200-7552 (213)663-2306

컴퓨터 HIS.COM 출장수리전문

오픈기법 세일 컴퓨터 수리

start \$29

- 컴퓨터 판매, 수리
- 컴퓨터 조립, 공무, 수리, 파일백업 및 관리
- DVR/IP CAMERA
- 4CH DVR \$1,199

213-810-4000

“모든 자동차 유리 수리 즉시 해결해 드립니다.”

아메리칸 자동차 유리

Cheap Repair!

- Foreign & Domestic Car
- 새 유리 & 중고 유리
- 넓은 윈도우하우스 인벤토리
- 무료 견적 견적
- Low, Low Prices
- Complete 오토글래스 서비스
- 한국어, 스페니쉬, 영어 서비스
- Stone Damage 수리

물 맞은 곳 때워 드립니다.
www.americanautoglassinc.net
Tel : (323) 752-1820
2052 W. Florence Ave, Los Angeles, CA 90047

냉난방기 설치 전문업체 경력 30년 유엔브랜트 냉난방기 전문 취급업체 / 미주 전지역 LG, 한대, 휘나, 삼성등만

AMAZING 에어컨백화점

7년 연속이아전 1위

에어컨 수리 & 설비 전문 업체

323.525.0011 / 213.200.5388/amazingaircon.com

< 2010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TEL : 562-926-1023, 4691 | FAX : 562-926-1025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코헨대학교 & 신학대학원

Cohen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TEL : 310-793-2285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USA



국제개혁대학교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TEL : (213) 381-0081, FAX : (213) 381-001
125 S.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캘리포니아센트럴대학교

California Central University

TEL : 213-381-7007, 213-248-0170
520 S. La Fayette Park Pl. Ste. #103, L.A., CA 90057

국제기독교교육대학

International Education College

유아교육대학 개강 2010년 7월 5일
(2주마다 입학 가능) www.icecusa.com
TEL. 213-368-0316 / FAX. 213-368-0318
3807 Wilshire Blvd #730 Los Angeles CA 90010
(월서 + 웨스턴)

국제장로회연합신학대학

Unit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TEL : 714-879-7952 | FAX : 714-956-2900
2221 W. Colchester Dr., Anaheim, CA 92804



세계기독교대학교

World Christian University

본교 대학부는 전액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수시입학 가능) ABHE 승인
TEL : (323)734-0227
2716 Ellendale PL. LosAngeles, CA.90007

풀러신학교신교대학원한국학부

Fuller Theological Seminary S.I.S Ko.Studies

TEL : 626-584-5574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피드몬트대학교

Piedmont University

TEL : 323-777-5269
10900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44

다니엘신학대학원

Daniel Theological Seminary

<장학금을 지급함>
TEL : 213-381-9490, FAX : 213-385-9191
2911 W.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솔로몬대학교대학원

Solomon University, SU

총장 Dr. Esther J. Baek Ph.D 백지영 박사,
부총장 Dr. Brent Price Ph.D
TEL : 213-381-7755 | FAX : 213-487-7373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School Code : 94809

칼빈성서신학대학원

Calvin Bible College & Seminary

TEL : 213-389-8987
4055 Wilshire Blvd. 6419 L.A., CA 90010



미주개혁신학대학교

I-20 발급

2966 Wilshire Blvd. 2nd Floor, Los Angeles, CA 90010
Tel #: 213-736-6500 / Fax #: 213-736-6504

아메리칸신학대학및대학원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ARPC 미국 총회 목사 안수 I-20 발행
TEL : (323) 733-7565 , (818)535-9036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http://www.atsusa.org



미션신학대학교

Mission Christian University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하게 일할 수 있는
사명자를 양성합니다. (전액 장학금 지급)
TEL : (562) 869-7497 www.mcuniversity.org
15000 Studebaker Rd. Norwalk, CA 90650



중앙일보/중앙방송 인터넷 사이트 (www.koreadaily.com) [조인스아메리카 선정]
“통신부문 최고 히트상품”

아이토크비비와 추신수 선수가 함께 월드컵 한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무제한 로컬/장거리/한국포함 국제전화가 단지 \$9.99/월

한국 대표팀이 승리할 때마다 1개월 무료혜택!
* 6월 11일-6월 30일 신규가입자에 한함

따르릉~
한국팀이 이겼다고 전화왔어요!

대한민국!

아·이·토·크·비·비
iTalkBB

Verizon AT&T가정용 전화 완전대체

글로벌 플랜 \$9.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24.99/월

로컬/장거리/한국포함 27개국 무제한 국제전화
음성서함, 발신자 표시, 3시간 통화, 착신전환 등 부가 서비스 무료제공

글로벌 플랜 \$14.99/월

TAX 포함 첫 3개월간, 이후 15개월간 \$34.99/월

글로벌 플랜의 모든 혜택은 기본 한국 휴대전화로까지 무제한 통화!

지금 가입하시면, **30일 환불보장**

- ☞ '나만의 한국전화번호' 마이 코리아 넘버 무료
- ☞ '간편한 전화카드 기능' 아이토크글로벌 무료
- ☞ 개통비(\$29.99) 면제

이런 분들께 **아이토크비비**를 적극 권합니다.

- 집전화는 유지하고 싶지만 높은 기본요금 때문에 걱정인 분
- 평소 미국 캐나다 지역 장거리 전화 통화가 많으신 분
- 한국 등에 국제전화를 많이 거시는 분
- 미국 인터넷 환경에 맞는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영아가 불편해 한국어 고객지원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
- 외출시에도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국제전화를 걸기를 원하시는 분

아이토크비비 사업자 모집 | 한인 출입이 많은 매장을 보유하신 분 또는 활동적인 분을 사업자로 모집합니다.
사업자 상담 전화: 213-784-1133 (동부시간 오후 1시-오후 9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800-872-2902 온라인 가입 및 자세한 내용은 ▶ www.Korea.iTalkBB.com
1-800-875-8318 고객센터 *고객상담시간: 365일 오전 9시-오후 1시 30분(EST)

iTalkBB

www.koreadaily.com

Joins AMERICA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아이토크비비 아이토크비비는 환경보호를 위해 종이 청구서 대신 안전한 온라인 크레딧 카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PH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HAS IT**

Super Store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태극 전사의 **4상 신화**를 기원 합니다.



"최대 규모, **최다** 차량 보유,
최신 장비 보유, **최고**의 서비스, **최저** 가격 보장"

한국에서의 명차 에쿠스가 미국에 드디어 옵니다.

\$99을 내시고 예약을 하시는 분께 명차를 우선적으로 가지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려고 합니다.

목회자 특별리스 및 원가 세일

현재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들께 크레딧이 나쁘시거나, 없으셔도 특별 리스해 드립니다.

(단, 2010년 NEW 엘란트라와 2010 pre-owned 소나타 제한) 구입을 원하실 경우 전차종 원가 대우해 드립니다.

6월 스페셜 세일

2011 최신형 현대 쏘나타
(O.A.C & PLUS TAX T.D.O \$2,399/12KMILE)
LEXUS만큼이나 좋은 차, 불티 납니다.

\$199/3YR STK:031704



2010 신형 제네시스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2,999/12K MILE)
대형 세단의 중후함을 느껴 보세요.

\$399/3YR STK:101312



2010 신형 제네시스 COUPE M/T
(O.A.C & PLUS TAX, COMP. INCENTIVE
T.D.O \$2,199/12KMILE) 스포츠 카의 최 강자,
미래형 디자인과 힘을 느껴 보세요.

\$259/3YR STK:031622



2010 신형 엘란트라
(O.A.C & PLUS TAX, INCENTIVE, TAX T.D.O \$1,999/12K MILE)
(목회자 특별 리스 해당 품목)
중소형 세단으로 연비 절감 효과

\$159/3YR STK:049539



6월 중고차 매니저 스페셜

2007 BMW 328I WHITE STK:PZ70863 **\$21,890**

2009 HYUNDAI GENESIS BLACK STK:P018925 **\$28,890**

2005 NISSAN FRONTIER SILVER STK:P461103 **\$10,890**

2008 NISSAN ALTIMA SILVER STK:P226495

2009 TOYOTA SIENNA LE BLUE STK:P277257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9 HONDA ACCORD WHITE STK:P021316A

2007 CHRY TOWN&COUNTRY RED STK:P304471

2005 HONDA PILOT EX BLACK STK:025133BA

2007 HYUNDAI AZERA LTD GRAY STK:P185167

2008 HYUNDAI AZERA LTD SILVER STK:P295894

2009 HYUNDAI ELANTRA SILVER STK:P618846

2008 HYUNDAI ENTOURAGE GRAY STK:P052717

2009 HYUNDAI GENESIS SILVER STK:P031934

2009 HYUNDAI GENESIS WHITE STK:P048693

2010 HYUNDAI SONATA WHITE

STK:P586665

2003 MINI COOPER CONV. PURPLE

STK:568848A

2006 VOLVO S60 WHITE STK:574836A

2008 NISSAN ALTIMA GRAY STK:P199144

FREE CAR WASH EVERY SATURDAY 9AM-NOON

\$14.99 Oil Change and Car Wash

For All Hyundai Owners + 27 Point Inspection. First time customers only. Available any day. Call for an appointment. Present coupon at time of write-up.

세일즈 시간 월~토요일 9:00am~9:00pm

일요일 10:00am~8:00pm

서비스 시간 월~토요일 7:30am~6:00pm

일요일 8:00am~2:00pm

"서비스는 친절한 한인담당 Mr. 박을 찾아주세요"



* 한인타운에서 20분 거리 & 오렌지타운에서 20분 거리



찰리 정



스티브 정



앤디 김



스티브 박



지나 안

PH 푸엔테힐스 현대 T. 888-212-6431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 WWW.PHHYUNDAI.COM



VEHICLE HISTORY REPORTS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Right now, finance or lease any new Hyundai, and if in the next year you have your Hyundai, we'll get you \$1,000. See dealer for details.